

韓流 넘보는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중국의 무차별적 ‘문화 공습’이 본격화했다. 중국 자본이 해외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한류의 본산인 우리 시장을 속속 잠식하고 있다.

중국의 한국 콘텐츠 업체의 경영권 인수에서부터 지분 참여, 합작투자, 인력 유입까지 차이나 머니의 우리 문화시장 공습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 주나인태내셔널은 최근 ‘올인’과 ‘주몽’ 등 한류 드라마를 제작한 중견 제작사 초록됰미디어를 120억원에 인수했다. 중국 화제미디어그룹은 영화 ‘신세계’ 7번방의 선물 ‘변호인’ 등을 투자 배급한 NEW에 535억원을 투자하며 단숨에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중국의 거대 IT기업 텐센트는 지난 2010년부터 CJ게임즈 등 국내 게임사에 무려 7000억원을 투자했다. 중국 포털업체 소후닷컴은 배용준, 김수현이 소속된 연예기획사에 150억원을 투자했고 중국 투자기업 푸싱그룹은 YG엔터테인먼트에 콘텐츠 합작 사업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계 한 기업은 극장체인 메가박스의 인수작업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중국 업체가 최근 연예인 매니지먼트와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대형 연예기획사를 인수하는 데 거의 확정단계에 이르는 등 최근 1~2년 사이에 중국 업체의 한국 연예기획사와 제작사 인수 가늠에 띄게 많아졌다”고 말했다.



차이나머니

자연, 장나라 등 한류스타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장태우 PD, ‘열기적인 그녀’ 객채용 감독 등 한국 제작진을 속속 영입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한국 인력을 활용해 중국 콘텐츠를 제작,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국내 업체에 대한 자본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한류 시장 확대를 꾀하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단기 기능을 하지만 장기적 차원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많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작 인력의 해외 유출을 중국 진출로 포장하고, 중국 자본의 국내 제작사 인수를 외화 유치라고 홍보하는 등 장밋빛 환상에 빠져 있다”며 대만의 사례를 언급했다. 대만은 ‘판관 포청전’ ‘꽃보다 남자’를 아시아 전역에 히트시켜 한때 아시아에서 콘텐츠 강국으로 떠올랐지만 중국 자본의 무분별한 유입과 인력 유출로 인해 현재 중국 콘텐츠 산업의 하청기지로 전락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윤호진 산업정보팀장은 “중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 단기적으로는 콘텐츠의 모방으로 타격을 받았지만 이를 뛰어넘는 콘텐츠 생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자본의 유입과 한국 제작진의 중국 진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sun@

제작사 사들이고 기획사 잇단 투자 메가박스 인수작업도 본격 돌입

中 자본, 콘텐츠 산업 잠식 가속화

하청기지 전략 ‘대만 전철’ 밟을수도

중국의 한류 잠식은 한국 콘텐츠 업체의 인수나 자본 참여뿐만 아니라 한국 콘텐츠 제작 핵심 인력의 중국 유입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방송사와 영화사, 기업들은 한국 몸값의 2~4배를 주며 송해교, 이준기, 박해진, 주

자본잠식 ‘GS플라텍’ 지분, 오너 개인회사로부터 인수 오너家 손실 떠안은 GS에너지

37.75% 양수...지분 100% 자회사로

회사측 “효율적 의사결정 위한 것”

GS에너지가 GS그룹 일가가 보유한 자본잠식 회사 GS플라텍의 지분을 인수했다. 오너가 대신 적자 투성이인 회사를 떠안으며 오너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GS에너지가 떠안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에너지는 GS플라텍 지분 37.75%를 주당 1원에 취득했다. 주식 양도인은 위너셋(36%)과 기타 1인(1.75%)이다. 이에 따라 GS에너지는 GS플라텍 지분 100%를 확보했다.

GS플라텍은 플라스마를 이용한 폐기물 처리 기술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성가스를 에너지로 회수하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GS그룹이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위해 2010년 4월 편입했다.

회사 관계자는 “GS플라텍 폐기물 처리 기술 중 플라스마 기법은 미래 기술로 안정적 연구개발(R&D)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 의사결정이 필요해

지분을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GS플라텍이 재무구조가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지분을 양도한 회사가 오너가 개인회사라는 점이다.

위너셋은 그룹 오너가 3세인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과 GS그룹 장손인 허준홍 GS칼텍스 상무가 각각 지분 18.7%, 10.1%를 보유한 12대 주주로 있는 회사다. 이 외에도 허용수 GS칼텍스 회장의 아들 허세홍 부사장(7.7%)과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장남인 허윤홍 GS건설 상무(5.7%) 등 오너가가 위너셋의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GS플라텍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순손실 112억원을 기록했다. 자본총계는 -234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이에 따라 GS에너지 역시 지난 2012년 이후 84억원 상당을 GS플라텍에 지원했지만 이를 전액 손상차손 형태로 손실처리했다.

GS에너지 관계자는 오너가의 손실을 떠안았다는 지적에 대해 “GS그룹의 자회사를 보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가 많고 이번 결정도 100% 자회사를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GS의 주식도 절반 가량이 오너가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오너가 손실을 떠안은 결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졸업·입학 눈앞...자태 뽐내는 베고니아



졸업과 입학시즌을 앞둔 2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화훼수출영농조합법인에서 관계자가 출하 전 꽃을 살펴보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lifer@

산업은행發 M&A 큰장

대우증권 연내 매각...계열사 매물 최대 9조

산업은행이 올해 대우증권 등 금융회사와 비금융계열사 등 7개사를 매각할 계획이어서 9조원 규모의 M&A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한진, 동부, 현대그룹 등 대기업 부실로 기업 매물이 쏟아졌다면 올해는 산업은행 자회사 매물이 M&A시장을 뜨겁게 달궔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과거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인수했던 금융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떠안은 기업들이 대거 M&A시장에 쏟아질 전망이다. 시장에서 산업은행발 매물이 최대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우증권은 민영화, 매각 보류 등을 오가다가 결국 연내 매각 대상 기업에 명단을 올렸다. 매각 대상은 산업은행이 보유한 보통주 43%(약 1억4048만주). 매각 대금은 대우증권 현재 추가 1만원을 적용하면 1조4000억원이 넘는다. 시장에서 경영권 프리미엄과 업계 위상을 고려해 최대 2조원의 매각가를 전망하고 있다.

홍기택 회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KDB대우증권, KDB캐피탈, KDB자산운용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매각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 매각 시기와 방법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대우증권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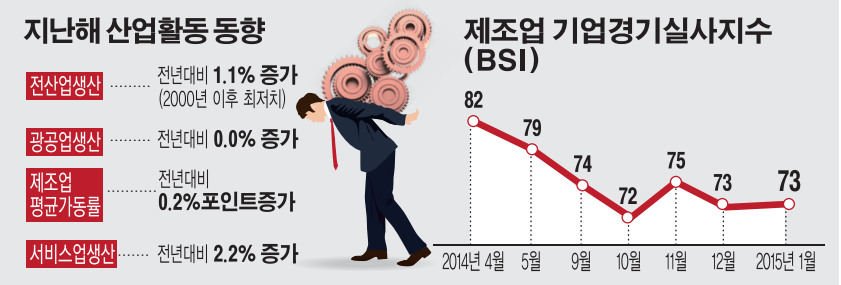
산업은행 자회사 현황 및 예상 매각가	
금융 자회사	대우증권 2조원
	KDB생명 6000억원
	KDB캐피탈 2000억원
	KDB자산운용 2000억원
투자회사	대우조선 2조원
	KAI 1조5000억원
	대우건설 2조원

각시키는 현대증권 매각이 끝난 다음이 유력해 보인다.

대우증권 외에 KDB생명, KDB캐피탈, KDB자산운용 등 4사와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KAI 등 비금융계열 3사 등 7곳도 잠재적 매물 후보군이다. 수년째 매물로 거론됐지만 올해엔 특히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가격이다. 대우조선의 경우 지난 2006년 인수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해지면서 6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조선업계 업황이 좋지 않은 점이 매각의 최대 걸림돌이다. 대우조선 시가총액은 지난 29일 종가기준 3조 6000억원 수준이다. 산업은행 보유 지분으로 환산하면 약 1조1300억원 규모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100% 얻는다 해도 2조원 안팎으로 매각가가 형성될 전망이다.

안철수 기자 acw@



제조업 체감경기 여전하...

1월 BSI 73...전년과 비슷해

작년 산업생산은 1.1% 증가

2000년 조사후 가장 낮아

1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제자리걸음을 나타내는 등 올해 들어서도 기업심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해 전산업생산도 전년 대비 1.1% 증가에 그쳐 2000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올 1월 제조업 업황 BSI가 73으로 전월과 동일하다고 30일 밝혔다. BSI는 기업이 느끼는 경기 상황을 지수화한 것으로 이 지수가 100을 밑돌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 제조업 BSI는 지난해 4월(82) 세월호 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5월(79)부터 내리막 길을 걷다가 9월 74, 10월 72, 11월 75, 12월 73 등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특히 이달 제조업 BSI는 계절 조정으로는 75로, 전월에 비해 1포인트 떨어졌으며 2월 제조업 업황 전망 BSI는 73으로 전월 대비 4포인트나 내렸다.

지난해 전산업생산도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4년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014년 전산업생산은 건설업 등에서 감소해 전년 대비 1.1%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한편 12월 전산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0.9%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박상영 기자 sympark@

데이터 뉴스 Data News

서울, 세계에서 24번째 안전한 도시

일본의 수도 도쿄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됐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싱크탱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안전한 도시’ 지수 2015’ 보고서에 따르면 도쿄는 100점 만점에 85.63점을 받아 50개 도시 중 1위에 올랐다. 서울은 70.9점으로 프랑스 파리에 이어 24위에 머물렀고 디지털 안전 부문에서는 50개 도시 중 47위로 저조한 성적을 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삼성 19%·LG 17%로 2·3위에

인텔과 삼성, LG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6~9일(현지시간)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5’ 기간 중 트위터에 가장 많이 언급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미국가전협회(CEA)에 따르면 CES와 관련해 ‘리캡(주요 트위터)’이 이뤄진 트위터 멘션 41만9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인텔이 27%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어 삼성 19%, LG 17%, 소니 14% 등의 순이었다.

장효진 기자 js62@

Star

금요섹션
15~21면

커버스토리
한국영화 1000만 흥행사

토요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김은선 회장

박중수 협회장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공공기관’ 굴레 벗어난 거래소… 다음 수순은 ‘IPO 준비’

한국거래소, 6년 만에 지정 해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29일 제2차 운영위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거래소가 지난 2009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지 만 6년 만이다.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거래소 기업공개(IPO)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거래소의 IPO 논의는 증권업계 전반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거래소가 결국 IPO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글로벌 거래소들이 M&A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한국거래소는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거래소가 활발한 M&A를 하려면 거래가치가 얼마인지 평가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지금 막 해제된 거래소가 짧은 시간 내에 당장 IPO 이슈를 꺼내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만경영 감시망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지자마자 IPO까지 추진하게 되면 ‘자기를 배반 불린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의 IPO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제약 요인은 ‘독점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기업공개 여부에 업계 관심 집중

지분 보유 30여 증권사 기대감

독점적 지위 해소 등 걸림돌로

대체거래소 나와야 본격 논의

다. 독점적 지위를 현실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체거래소(ATS)가 설립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법률상으로도 가능해졌을 뿐 이렇다 할 설립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현재 규제체계 하에서는 대체거래소의 출현 가능성이 낮은 데다 금융당국도 거래소의 상장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않는 것 같다”며 “앞으로 경쟁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커지고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하면 대체거래소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IPO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약 30여개의 증권사들의 지분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이슈다. 업계 관계자는 “지분 거래가 가능

해지면 거래소 주식의 최대 5%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도 얽매이지 않게 돼 증권업계의 활발한 M&A와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0일 현재 지분보유 현황을 보면 국내외 주요 증권사와 선물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투자협회 등이 적게는 1%, 많게는 7%대까지 총 95.4%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나머지는 거래소가 보유한 4.6%다.

최대주주는 NH투자증권으로 지분율은 7.45%다. 이어 한화투자증권이 5.0%를 보유했다. 동양증권과 대우증권이 각각 3.46%와 3.23%를 갖고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금융투자협회도 각각 3.03%와 2.05%의 거래소 지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대 수혜는 2대 주주인 한화투자증권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언뜻 최대주주인 NH투자증권이 가장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정은 다르다. 당초 4.60% 지분을 쥐고 있던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우리투자증권과 합병하면서 거래소 지분이 2.85% 증가해 7%를 훌쩍 넘긴 상태다. 때문에 NH투자증권은 5%를 넘어설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초과분인 2.45%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만큼 향후 지분매각은 순탄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반면 5.00%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투자증권은 골치 아픈 지분 매각과정이 필요 없는 상태다. 복잡한 매각과정이 필요한 NH투자증권과 달리 가만히 앉아서 거래소의 상장 가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 전후 비교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전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후
감독기관 이사장·임원 선임 감사 경영정보 공개 경영평가 사업제한	· 금융위원회 · 이사회에서 선출 · 대상 제외 · 의무없음 · 대상 제외 · 신규사업· 조직개편 가능



거래소 어떻게 바뀌나

거래·상장 활성화… 국제화 선도

파생상품 활력 회복 노력… 고객 중심 경영혁신도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정해제 의결에 따라 향후 운영 방안을 내놴다. 6년 만에 숙원사업이 해결된 만큼 거래소는 한껏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거래소는 △거래 및 상장 활성화 △자본시장 국제화 선도 △고객 중심의 경영혁신 등 3가지 세부 계획을 내놴다.

먼저 거래 및 상장 활성화를 위해 제매당 관행과 낙후된 기업재배구조 등 만성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 기능 강화와 파생상품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본시장 국제화를 위해 시장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협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 거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영혁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방만경영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할 계획이라는 정사진도 함께 내놴다.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해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통해 “모든 임직원들이 이번 공공기관 해제로 경영 자율성이 확대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

저하게 시장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마인드로 무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콤도 거래소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코스콤은 거래소의 자회사이다.

코스콤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에도 방만경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업 계획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당시에 세운 것으로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겠지만 IT 회사로서 개발 프로젝트를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예탁결제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종전 준정부 공공기관에 해당하던 예탁원은 이번 재분류를 통해 관리·감독 일원화 등이 이뤄지며 자본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된 예탁원은 전체 지분 중 한국거래소가 70.41%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정부 지분이 없어 지분구조상 공공기관 해제 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독점수입이 50%가 넘으며 수익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기관 해제 대신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데 그쳤다.

김준형·김유진 기자 junior@

한국거래소의 역사

대한증권거래소 출발

〈1956년〉

코스닥·ETF 개설 등

〈1996년〉

〈2003년〉

자본시장 발전 이끌어

한국거래소가 통합 출범 후 처음으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거래소는 앞으로 상장 유치에 적극 나설고 파생상품 부문에서 예전의 명성을 되찾는 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의 전신은 1956년 2월 11일 설립된 대한증권거래소이다. 같은 해 3월 증권시장을 개장한 뒤 1979년 증권거래소를 병동에서 여의도로 이전하고 1988년 회원제 한국증권거래소로 전환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1990년대 성장기를 거치며 자본시장의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1992년 외국인의 국내주식 직접투자 허용, 1994년 KOSPI200 발표, 1996년 코스닥증권시장을 설립하면서 국내 자본시장을 이끌어왔다. IMF 당시 추축했지만 곧 IT열풍이 퍼지면서 2000년대에는 증시 열풍과 함께 한국거래소도 전성기를 맞는다. 코스닥50지수 발표, 상장지수펀드(ETF)시장 개

한국거래소 주요 연혁

1956년 2월11일	영단제 대한증권거래소 설립
1962년 4월1일	주식회사제 대한증권거래소로 전환
1963년 5월3일	공영제 한국증권거래소로 전환
1979년 7월2일	증권거래소 명동에서 여의도로 이전
1992년 1월3일	외국인의 국내 주식 직접투자 허용
1994년 6월15일	KOSPI 200 발표
1997년 1월3일	코스닥 지수 발표
1999년 2월6일	한국선물거래소 설립
2003년 4월28일	코스닥시장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개설
2005년 1월27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 출범
2007년 8월17일	외국기업 최초 상장
2009년 1월29일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2011년 1월11일	리오스 증권시장 개설(지분 49% 출자)
2012년 4월18일	캄보디아증권시장 개장(지분율 45%)
2013년 7월2일	코넥스시장 개설
2015년 1월29일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

설, 코스닥시장 상장지수펀드(ETF)시장 개설 등 국내에서는 제도적인 내실을 다지고 글로벌화를 지향했다.

특히 2005년은 통합 한국거래소가 출범한 해이다. 당시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선물거래소를 합쳐 하나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통합 후 세계적인 선진거래소와 경쟁에 나섰지만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이명박 정부 때 한국거래소가 시장 독점적 사업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

그러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뒤 정부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인사 및 사업 집행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에 공공기관 해제 요구가 나왔다. 그리고 6년 만인 2015년 1월 29일 공공기관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황윤주 기자 hyj@

발상의 전환!

증권사 최초 금융상품 연계 체크카드 탄생

able i max Card



CMA 우대수익률 및 금융상품 추가수익률 혜택!

30% 소득공제 혜택까지

이제 체크카드 한 장으로 누리세요

소득공제 30% 혜택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 혜택 제공

최대 40% 현장할인

백그라운드, 유명 레스토랑 등 전국 500여 제점점 한정할인

수수료 무료 서비스

각종 출금 및 이체 수수료 무료 (연월실적 10만원 이상 시 제공)

able i max Card

able이 추구하는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현대증권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담아 CMA, ELS, 펀드, 퇴직연금, 연금저축 5가지 시리즈로 선보이며 인간이 만든 불가사의라 불리는 완벽한 조형물인 피라미드를 모티브로 탄생하였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심사필 제14-07679호(2014년11월11일~2015년11월9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현대증권

靑 비서실장 김병호 부상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기춘 실장의 경남고 3년 후배
KBS 보도국장 출신 2선 의원
새누리 대선캠프 공보단장 활동

박근혜 대통령의 새 비서실장 후보로 김병호(72·사진) 언론재단 이사장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여러 후임 비서실장 후보군 중 김병호 이사장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서실장 교체 시기는 해양수산부 장관 등 개각과 청와대 인사개편이 마무리된 이후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난 23일 총리 교체와 청와대 개편 인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제외된 데 대해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아 할 일이 더 남았다”며 유임은 현시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임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김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중퇴한 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KBS 정치부장과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등

을 역임했다. IMF 사태가 터졌을 당시인 1997-1998년에는 IMF 극복을 위한 전 국민 급 모으기 운동을 기획 추진했다. 김기춘 실장의 경남고 3년 후배로, 제 16·17대 국회의원(부산 진구갑)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대선캠프 공보단장으로 활동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후임 비서실장으로 김 이사장을 비롯해 박 대통령의 원로 지지그룹 ‘7인회’ 멤버인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 안병훈 도서출판 기파랑 대표, 황교안 법무부 장관, 권영세 주중대사 등을 두루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김 이사장이 차기 비서실장으로 떠오른 데는 최근 발탁된 ‘특보단’ 인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에 70대의 이명재 민정특보가 임명되고, 종전 정치인이 정부특보에 인선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통’을 위한선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았다. 그러나 70대 후반의 현경대 수석부위원장은 너무 고령이어서 참신성이 떨어지고, 안병훈 대표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었다. 50대 후반의 황교안 장관과 권영세 대사의 경우 특보단과 청와대를 이끌기에 너무 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중 기자 zerg@

“변명 일관… 정상회담 내용까지…”

정치권 뒤흔드는 이명박 회고록



북측 정상회담에 내전 조건
무슨 ‘계산서’ 같은 느낌

4대강, 전문가들 공들여 기획
감사원이 결론낼 문제 아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출간되기도 전에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북한 등 외국 정상들과 회담 내용을 노출시켜 대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변명만으로 일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라며 전면적 비판에 나섰다. 여당 내에서도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음은 이 전 대통령 회고록에 나온 주요 발언들이다. “손수건으로 닦아 보니 피눈물이었다. 이게 말로만 들던 피눈물이구나.”(1장 ‘나는 대통령을 꿈꾸지 않았다’ 중에서)

“노 대통령은 미국과 약속했다는 점은 시인하면서도 한-미 쇄고기 협상이 타결된다고 미국 의회가 FTA를 처리해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2장 ‘현대에서 보낸 27년’ 중에서) “북측이 8월 정상회담을 처음 제안한 시점부터 줄곧 요구해온 조건과 동일했다. 문서에 지원 내역과 일정을 정리해놓은 것이 마치 무슨 정형화한 ‘정상회담 계산서’ 같은 느낌이었다.”(5장 ‘원칙 있는 대북정책’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많은 하천 관련 전문가들이 공들여 기획한 것이다.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판단해 결론을 내릴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9장 ‘5년 대통령이 100년을 보다에서’) “세종시 수정을 고리로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2012년 여당의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사게 됐다. 돌이켜 보면 당시 여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표 측이 끝까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한 이유도 이와 전혀 무관치는 않았다고 생각한다.”(9장 ‘5년 대통령이 100년을 보다에서’) 윤필호 기자 beetlebum@

2%대 고정금리·20년 분할상환 대환대출

이자·세금 총 9000만원 절감 가능

오는 3월 출시되는 2%대 고정금리·20년 분할상환 대환대출의 가장 큰 매력은 이자 절감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00원을 버는 직장인 A씨가 변동금리(3.5%)·만기일시상환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자. 연장을 통해 20년간 원금상환 없이 갚아 나간다면 그는 매달 58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만기 때는 2억원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 20년간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 1억4000만원에 달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더 늘어난다. 그러나 A씨가 이번에 출시되는 2%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타면 이자 규모는 6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상환

금까지 함께 내야 하기 때문에 매달 부담해야 하는 돈이 109만원으로 늘어나기는 하지만 2억원을 한 번에 낼 필요가 없으니 만기 부담이 없다.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20년간 1000만원 수준)까지 받는다면 이자에 세금까지 총 9000만원이나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상환에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품 출시를 기준으로 1년 전 대출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올해 계획된 상품한도가 20조원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2조원씩 상향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소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산단내 에너지 공급업체 신규입주 허용

산업부 ‘규제기요틴’작동
열·증기 공급업자 설비 투자시
시설구역 입주자격 제한 완화
투자활성화·일자리 창출 기대

주요 내용	기대 효과
→ 국가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 입주자격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제한 → 기존 사업자의 열(증기) 수요 증가시 직접투자 외에 다른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해 공급하는 방법은 불가 → 기존 사업자에게 열(증기)을 공급하는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산집법 시행령 개정)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설비 신증설 지원 등 투자 활성화, 에너지 수요 대응력 강화 및 효율성 제고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에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아닌 다른 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산업시설 구역에서는 입주기업 외의 업체가 에너지 공급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이 주도한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확정된 경제분야 투자·일자리 창출 개선 과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규제 기요틴은 경제혁신을 가로막는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은 규제를 대규모로 단기간에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개혁 방식으로 정부는 8개 경제단체에서 받은 153건의 규제 기요틴 중 114건의 개선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자격 제한 완화’ 과제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산집법 시행령은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국회 의결 절차 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단 집단에너지사업자 외에 열·증기를 공급하는 업체의 산업시설구역 신규 입주가 허용된다. 집단에너지

사업이란 주로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1곳 이상의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복수의 에너지(주로 열과 전기)를 주가·상업 또는 산업단지 내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해주는 사업이다. 현재는 산단 집단에너지 사업체가 아닌 다른 열 공급업체의 산업시설 구역 진입이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설비가 노후되거나 산단 입주업체의 열·전기 수요가 늘어 열 공급설비를 확장해야 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직접 투자를 통해 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방안 외에는 대안이 마땅치 않았다.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의 투자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산단

내 원활한 에너지 공급 또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공공시설 구역에 에너지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실제 수요처와 떨어져 있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열·증기 공급업자가 기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설비 신·증설에 투자하면 산업시설 구역에 동반 입주하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외부투자를 유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열·증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산단 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설비 투자 실태 공표로 산단 내 입주기업이 늘어나면 에너지 증가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의 에너지 이용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대규모 규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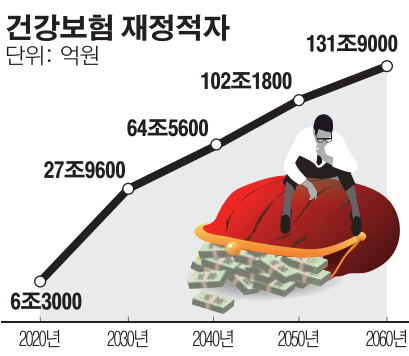
한·중 경제장관회의



최경환(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쉬 사오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건보료 개편 백지화… ‘재정적자’ 가속화

인구 감소·고령화 사회 영향
2050년 100조원 넘어설 듯



보건복지부가 고소득층에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논의는 중단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재정적자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당장 내년부터 건보 재정 적자가 예상되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의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유지한다면 △2030년 27조9600억원 △2040년 64조5600억원 △2050년엔 100조원을 넘어서 2060년이면 132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로 피부양자 비율이 증가하는 최악의 상

태를 두고 추계한 자료지만 현재의 하점 많은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복지부는 고소득자에게 건보료를 더 부과하는 논의는 중단하고, 저소득층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혀 재정적자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논의했던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안은 고소득자에게는 건보료를

더 걷고 저소득층의 건보료를 경감시켜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었다. 건보료를 더 내는 고소득층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도 고소득층의 건보료 자체가 높은 만큼 저소득층의 건보료를 낮춰도 재정적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2023만명 중 200만명 정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면 매년 수천억원의 재정을 채울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을 꾸준히 늘려 왔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의 백지화가 확실해지면 당장 내년부터 건보재정 적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321억원의 흑자를 마지막으로 △2016년부터 1조4797억원 △2017년 1조5684억원 △2018년 1조9506억원 등의 적자 행보를 이어 가게 된다. 김부미 기자 boomi@

김포·위례 수도권 신도시
‘뉴스테이’ 1만가구 짓는다

위례신도시와 화성 동탄2, 김포한강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 1만37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용지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연내 즉시 착공이 가능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택지를 뉴스테이 용지로 전환, 24개 블록(1만37가구)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LH 보유 택지 1만여 가구를 LH 홈페이지와 임대주택 포털에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개된 토지는 경기 화성시 동탄, 김포 한강신도시, 위례신도시, 용인시, 성남시 등 전국 24개 블록, 1만37가구 분량으로 아파트 용지는 8개 블록, 7425가구이고 연립 용지는 16개 블록, 2612가구다. 이들 부지는 다음 달부터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1차 공모는 4월 약 3000가구 규모로 진행한다. 이후 6월에 2차, 3차는 9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금주의 법안

교통범칙금 카드·분할 납부
‘대북전단 살포’ 통일부 승인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6·30일 오전까지 총 53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의원입법안이 51건, 정부입법안이 2건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교통범칙금 등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신용카드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납부의무자가 자율적으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납부 능력이 부족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북한지역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살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에선 나성린 의원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눠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의중 기자 zerg@

어머니~ 일단 이것부터 삼시다



제19회 맘앤베이비엑스포가 2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제19회 맘앤베이비엑스포는 250개 태고, 유아용품, 임신부용품, 어린이 안전용품 및 영유아 식품, 유아교육용품 관련 업체가 참여해 오는 2월 1일까지 일산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다. 유모차를 탄 아이가 비눗방울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무죄’ 외환銀 이긴 ‘유죄’ 론스타

‘주가조작’美 사모펀드, 400억 배상받아

지난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절반 이상을 외환은행이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4조6600억원의 차익을 남기면서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춘 의원실과 금융정의연대 등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해 말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을 수용, 배상금 50%, 소송 비용,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이달 초 론스타에 4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합병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고자 외환카드 주가를 고의로 낮췄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2011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론스타는 올림푸스캐피탈(당시 외환카드의 2대 주주) 등에 2012년 손해배상금으로 약 713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론스타가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중재재판소로 사건을 가져가면서 이 같은 판정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의 재판 당시 함께 기소됐던 외환은행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따라서 이번 싱가포르에서의 중재 결과가 사실이라면 무죄를 받은 외환은행이 유죄를 받은 론스타에 피해액을 배상하는 꼴이 된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측은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중재에 관련한 사항을 언급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비밀유지 조항은 사인 간의 거래에 적용된다”면서 “감독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는 금융원이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당연히 확인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내일 시민단체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조화공시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자료가 공개되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측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아들 이어... 정욱근 前 총장도 체포

STX에 직접 뇌물요구 혐의

방위사업비리 정무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욱근(62) 전 해군참모총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전 총장은 2008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관련 사업을 수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STX조선해양과 STX엔진 등으로부터 장남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후원금 형식으로 7억7000여만원을 받았다. 합수단은 구속수감 중인 강덕수 전 STX 회장으로부터 ‘정 전 총장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트앤컴퍼니는 정 전 총장이 현직 총장이던 2008년 10월 건군 60주년을 맞아 해군이 부산에서 개최한 국제 관함식 행사와 관련해 부대행사로 요트대회를 진행했다.

앞서 합수단은 정 전 총장의 장남(38)과 윤연(67) 전 해군작전사령관을 전날 각각 금품 수수와 금품 제공에 공모 및 관련 혐의 등으로 체포한 바 있다.

합수단은 최근 서충일 ㈜STX 사장 등 전·현직 STX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조사하면서 STX 측이 요트앤컴퍼니에 지급한 후원금이 사실상 뇌물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좌영길 기자 jy97@

국세청, LG화학에 1000억 추징금

법인세 탈루혐의로 고강도 조사

LG화학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1000억원의 추징금을 통보받고 지난해 말 이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6월 LG화학과 LG하우시스에 조사4국 소속 인력 수십명을 투입, 수개월에 걸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LG화학과 LG하우시스의 분리 과정에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 등을 포착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2010년 이후 4년 만의 정기세무조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2009년 정

보·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한 존속법인인 LG화학과 창조재·박자·바닥재 등 산업재 분야의 LG하우시스로 분할됐다.

국세청은 장기간 세무조사를 벌여 LG하우시스에는 작년 11월 추징금 200억원, LG화학에는 12월 추징금 1000억원을 통보해 양사 모두 납부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30일 추징금 세부 항목에 대해 “범죄로 볼 수 있는 탈세·탈루가 적발된 게 아니라 몇 년치 자료를 들여다보다 보니 다양한 항목이 적발됐다”며 “LG화학과 LG하우시스 분할 때 법인세 문제 하나로 받은 게 아니라 수많은 항목이 합쳐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믿었던 ‘혼전계약’ 잘못쓰면 ‘휴지조각’

“권리포기·자유제한 명기는 무효”... 이혼때 효력 인정사례 드물어

최근 혼전 계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혼 당사자들이 이혼할 때를 대비해 재산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지만, 막상 법원에서 혼전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혼전계약서대로 재산관계가 정리될 것으로 기대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혼전계약 관심 급증 = 지난해 말한 결혼정보 업체가 미혼남녀 78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체의 54%가 ‘혼전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은 63.2%가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심에 비해 실제 계약서가 작성되는 일은 드물다. 서초동의 한 가사전문 변호사는 “젊은층이 전화 문의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뿐, 직접 혼전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의 이인철 변호사도 “혼전계약서는 재혼을 하려는 분들 중 재

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경우에 작성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혼전 계약 내용 법정에서 인정된 사례 없어 = 관심에 비해 혼전계약서 내용이 법정에서 직접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 대법원이 2000년 2월 ‘이혼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몇차례 있었을 뿐, 혼전계약서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한 사례가 없다. 그만큼 혼전계약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오랫동안 가사전문 법관으로 재직하다 개업한 ‘법무법인 지우’의 이현곤 변호사는 “오히려 혼전계약 내용이 유효할 거라고 기대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혼전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 = 변호사들이 전하는 혼전계약서 작성시 주의 사항은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상대방의 권리를 아예 포기하게 만들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좋은 예다. 재혼한 부부가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남편은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혼전계약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혼전계약의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런 계약이 이뤄졌다 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계약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둘째,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혼전 계약은 일정 규모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이혼시 재산으로 인해 생기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진다.

재산분할에서 빼고 싶은 대상은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비율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다이몬드 반지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대상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게 유리하다.

셋째, 공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결혼을 할 예정인 남녀의 경우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문서로 약속을 받아놓더라도 계약서만큼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혼전 계약서도 엄연한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는 근거를 남겨둬야 한다. 자필로 작성한 경우 필적감정을 할 수 있고, 타이핑된 내용이라면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변호사 등을 통해 공증을 받으면 법정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훨씬 유리하다.

좌영길 기자 jy97@

뜨끈한 온돌서 누리는 ‘서해일주’



서해금빛열차 개통식이 열린 29일 서울역에서 서해금빛열차에 탑승한 시민들이 온돌마루객실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해금빛열차는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정왕선을 따라 아산·예산·홍성·보령·서천·군산·익산 등 서해 7개 지역의 관광지를 찾아 떠나는 관광전열차다. 세계 최초로 열차에 한옥식 온돌마루실과 습식·건식 족욕카페 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신태현 기자 holijak@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책임 없다”

법원 “유족들 유해물질 입증못해”... 첫 손해소송서 패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공산품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낸 7건의 소송 중 첫 결론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낸 소송 7건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화학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페손산 원인물질)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국가가 이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지만 △이 물질이 직접 사인(死因)인지 △해당 제품에 이 물질이 함유됐는지 △국가가 관리책임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9일 박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2003년경 박씨 등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해 유독물질이 아니라고 판단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판정과정을 보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습기 살균제가 공산품 안전법이 적용되는 공산품에 해당된다 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규정상 제조업체가 스스로 확인을 거쳐 신고하도록 했 을 뿐 이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2011년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6명은 2012년 1월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좌영길 기자 jy97@

CJ E&M, 투자금 48억 가로챘나

부당수령 혐의로 검찰 수사

CJ E&M이 2010년 개봉한 영화 ‘야오나라 이츠카’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중소 영화 제작사인 ‘투베어퍼펙츠’가 받은 투자금 48억

원을 CJ E&M이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소 영화제작사인 ‘투베어퍼펙츠’는 2010년 4월 영화 ‘야오나라 이츠카’ 제작과 관련해 CJ계열사인 CJ창업투자를 포함한 5개사로부터 개봉 직전 48억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CJ E&M은 48억

원의 투자금을 투베어퍼펙츠 계좌를 통해 전액 회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법상 창투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에 투자하는 게 금지돼 있다. 투베어퍼펙츠는 이를 근거로 창투사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가져갈 자격이 없는 CJ E&M이 사실상 투자금을 가로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안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좌영길 기자 jy97@

‘대우그룹 분식회계’前임원

“추징금 억울”... 재심 청구

분식회계를 저질러 전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대우그룹 전직 임원들이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병주 전 대우사장 등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 임원으로 근무했던 6명은 이날 서울고법과 대법원에 각각 재심을 청구했다.

장 전 사장 등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로 회사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과 함께 1조400억~23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장 전 사장 등은 추징금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추징은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을 회수하기 위한 것인데, 법원이 국외로 빼돌렸다고 판단한 재산은 모두 대우그룹에 귀속됐고 개인이 이득을 본 게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이 추징금 제도를 범죄이익의 환수 수단이 아닌 사실상의 제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대우 워크아웃 당시 금융감독원 등의 현지조사를 통해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착복한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됐고, 재산 국외도피도 외환위기 발생으로 인한 회사 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심청구는 말 그대로 사건 당사자가 재판이 잘못됐으니 판결을 다시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현복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형사재심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재심청구 자격이 없다는) 각하결정은 내려지지 않는다”며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인용이나 기각결정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좌영길 기자 jy97@

‘철도 비리’ 조현룡 의원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

철도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법규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엔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삼성생명·화재 깜짝실적 ‘착시현상’?

삼성생명 ‘1조클럽’ 재가입...삼성물산 주식 처분 ‘1회성 요인’
삼성화재 영업이익60% 증가...사업연도 실적 3개월분 더 반영

삼성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지난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1년 만에 당기순이익 ‘1조 클럽’에 재가입했고, 삼성화재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60% 이상 증가하는 등 호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두 회사의 실적 이면에는 ‘1회성 요인’과 결산일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축소에 따른 ‘착시효과’이란 점에서 올해도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보험업계가 저금리·저성장장의 영향으로 영업과 자산운영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 1위 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3610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9114억원) 49% 증가했다.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삼성생명은 ‘1조 클럽’에 다시 가입하게 됐다. 하지만 순이익 증가는 ‘1회성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컸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초 삼성전자 배당금으로 약 1500억원을 받았고, 6월에는 삼성물산의 주식 747만주를 처분하면서 3614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5114억원 가량의 1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삼성생명이 실제 영업과 투자로 거둔 순이익은 8496억원으로 2013년 당기순이익의 91.14억원 대비 6.8% 감소한다. 삼성생명 역시 “순이익 증가 원인으로 1회성 요인에 기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기간 삼성생명의 총 자산은 214조원으로 전년대비(193조원) 11% 늘었지만 수입보험료는 22조9083억원으로 전년대

삼성생명 삼성화재 실적 현황			
삼성생명			
분류	실적	증감률	
매출액	27조4235억원	-7%	
영업이익	1조4272억원	52%	
당기순이익	1조3610억원	49%	
삼성화재			
분류	실적	증감률	
매출액	20조9891억원	34.20%	
영업이익	1조1197억원	64.40%	
당기순이익	8412억원	63.30%	

비(24조7617억원) 보다 7% 줄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841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63.3% 늘어난 규모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0조9891억원, 1조119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34.2%, 64.4% 증가한 것이다.

삼성화재의 호실적에도 1회성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2013년 회계연도 기준은 4월에서 12월까지 9개월간이었지만 지난해

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됐다. 즉 지난해 실적에 3개월분이 더 반영이 된 것으로 손익의 경우 동일한 12개월로 비교하면 약 15%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는 “당해 사업연도(12개월)와 직전 사업연도(9개월)의 실적기간 차이, 그리고 투자수익 개선 등에 따라 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신협사회공헌재단 출범 “연 1% 소액대출 지원”



신협중앙회는 국내 최초로 기부협동조합인 신협사회공헌재단을 출범하고 연 1%의 소액대출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재단에는 신협중앙회 및 전국 920개 신협 임직원이 조합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이날 대전 둔산동 신협중앙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출범기념식에는 문철상 신협중앙회장 및 사회공헌재단이사장을 비롯, 강재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고병석 열린의사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강구귀 기자 kkk@

SC은행, 中企에 연 1.7% 특별금리

‘다모아비즈통장’ 신규 가입시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4월 말까지 중소기업 법인고객에 대해 최고 연1.7%(세전)의 특별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SC은행과 최초 거래로서 다모아비즈통장에 신규 가입할 경우 가입일

로부터 3개월 동안 일별 잔액을 기준으로 1000만원 미만 연 1.3%,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연 1.5%, 5000만원 이상 연 1.7%의 금리를 적용해 준다. 단 올해 3월16일 전에 해약하면 특별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모아비즈통장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고객을 위한 자유입출금 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롭고 잔액에 따라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모아비즈통장에 가입

한 모든 고객은 별도의 조건 없이 자기앞 수표 발행 수수료, SC은행 내 송금수수료, 기업인터넷뱅킹 건별 이체수수료,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 및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인찬 SC은행 비즈니스세그먼트팀 이사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대내외의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 중인 중소기업 법인고객에게 힘이 되고자 특별금리 이벤트를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immj@

매년 9월은 금융규제 정비의 달

금융위, 주기적 제도개선...민원 전담처리 포털 가동

금융당국이 규제개혁 시스템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하고 주기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금융규제 민원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포털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월 마지막 화요일인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상시화하기 위해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9월 규제 정비의 달에 맞춰 4-6월에는 현장 중심 간담회나 서베이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7-8월에는 과제에 대한 실무 검토 과정을 거쳐 9월에 일괄 정비에 나서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기존 규제개혁 완료 과제에 대한 현장 반응을 점검하고 과거에 수용되지 않은 개선 요구 과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27개 등록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했으며 숨은

규제 680건 중 약 95%를 폐지하거나 업계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정비한 바 있다.

이밖에 10월 마지막 화요일인 저축의 날은 금융의 날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축뿐 아니라 기술금융이나 서민금융 등 분야별로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규제민원포털도 가동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규제 개혁을 상시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2월까지 포털 개발을 완료하고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민원 포털에 규제 개선 과제를 요청하고 회신하는 채널을 구축하고 규제 개혁 현황 알람판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과 금융위 간의 법령해석 요청 및 회신도 규제민원 포털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지도 의견수렴 창구 역할 역시 금융규제 민원포털을 활용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kimmj@

작년 카드승인액 578조... 6.1% 증가

2년연속 한자릿수 증가

지난해 국내 카드승인금액이 600억원에 육박했지만 증가율은 2년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다만 2013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경기 회복과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카드 경쟁력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4년 카드승인금액은 총 578조5800억원으로 전년대비 6.1%(33조41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카드승인금액 증가율 4.7%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2013년 카드승인금액 증가율이 한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9년(10.6%)보다 낮은 수치다.

카드승인금액은 신용카드와 체크·선불카드를 포함한 국내 신용판매 승인실적을 의미하며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해외신용판매, 가맹구매실적 등은 제외된 수치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국내 경기회복과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카드 경쟁력 개선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카드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카드승인금액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과 2014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카드승인금액 증가율 간 평균 스프레드는 1.2%포인트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평균 스프레드인 9.3%포인트 대비 큰폭으로 축소됐다.

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총 436조100억원으로 전년대비 3.1%,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총 113조5900억원으로 20.8% 각각 증가했다. 당국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체크카드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공제율이 부각되면서 체크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이 신용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해 카드 평균 결제금액은 4만726원으로 전년대비 7.1% 하락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2015년 새로운 회계연도, 효과적인 회계관리의 시작은 더존 프로그램입니다

더존 프로그램은 회계, 세무신고, 인사급여 관리부터 판매, 구매, 재고관리와 생산, 원가관리까지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15만 기업이 사용하는 국가대표 프로그램입니다.

Good, Better, Best IT그룹
더존 DUZON



✓**확인해보세요.**

더존 프로그램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이유

Q1. 쉽고 단순한 회계 프로그램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 주요 거래자료를 자동으로 수집, 본개하고 전표입력까지 완벽히 해줌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자금 흐름까지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가 프로그램 내에서 발행, 자동 회계 처리되며, 전자청구서, 전자독촉장으로 수금까지 지원하므로 자금관리가 보다 정밀해집니다.

Q3. 언제 어디서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나요?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보안/보존, 운영비용도 최소화합니다.

Q4. 회계 프로그램, 기업들이 왜 더존을 선호하나요?

가능, 사용편의성, 확장 연동성은 물론, 업계에서 유일하게 수백 명의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와 전문 상담원이 배치된 고객센터를 통해 확실한 사후관리와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 회계관리 □ 세무조정 □ 인사급여 □ 영업관리 □ 생산관리 □ 외주관리
□ 구매관리 □ 자재관리 □ 무역(수출입) □ 서비스관리 □ 공시환장관리
□ 전자세금계산서 □ 바로수금서비스 □ 금융CMS서비스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문의1688-5000



16.7 km/ℓ

혁신적 연비의 The New i40 디젤

• 다이내믹한 외관 디자인 • 동급 최초 7단 DCT • 유로6 디젤엔진



THE NEW **i40 DIES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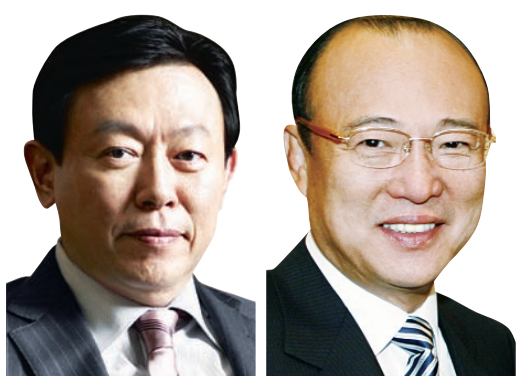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 구입 문의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단 080-6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동급 ▶ i40 1.7 e-VGT DCT(16인치 휠) 복합 16.0km/ℓ(도심 14.9km/ℓ, 고속도로 17.6km/ℓ) (CO2 배출량 122g/km) 배기량 1,665cc (공차중량 1,575kg) 7단 DCT(자동) ▶ i40 1.7 e-VGT DCT(17.18인치 휠) 복합 15.9km/ℓ(도심 14.5km/ℓ, 고속도로 17.0km/ℓ) (CO2 배출량 125g/km) 배기량 1,665cc (공차중량 1,590kg) 7단 DCT(자동) ▶ i40 saloon 1.7 e-VGT DCT(17.18인치 휠) 복합 16.7km/ℓ(도심 15.3km/ℓ, 고속도로 18.8km/ℓ) (CO2 배출량 116g/km) 배기량 1,665cc (공차중량 1,540kg) 7단 DCT(자동) ▶ i40 saloon 1.7 e-VGT DCT(17.18인치 휠) 복합 16.2km/ℓ(도심 14.9km/ℓ, 고속도로 17.9km/ℓ) (CO2 배출량 120g/km) 배기량 1,665cc (공차중량 1,559kg) 7단 DCT(자동) ▶ i40 2.0 GDI A/T(17.18인치 휠) 복합 11.9km/ℓ(도심 10.6km/ℓ, 고속도로 14.5km/ℓ) (CO2 배출량 147g/km) 배기량 1,999cc (공차중량 1,470kg) 7단 자동(수동) ▶ i40 saloon 2.0 GDI A/T(17.18인치 휠) 복합 11.5km/ℓ(도심 10.1km/ℓ, 고속도로 13.8km/ℓ) (CO2 배출량 153g/km) 배기량 1,999cc (공차중량 1,535kg) 7단 자동(수동) ▶ i40 2.0 GDI A/T(17.18인치 휠) 복합 11.4km/ℓ(도심 10.1km/ℓ, 고속도로 13.6km/ℓ) (CO2 배출량 154g/km) 배기량 1,999cc (공차중량 1,520kg) 7단 자동(수동) ▶ i40 saloon 2.0 GDI A/T(17.18인치 휠) 복합 11.3km/ℓ(도심 10.0km/ℓ, 고속도로 13.6km/ℓ) (CO2 배출량 147g/km) 배기량 1,999cc (공차중량 1,470kg) 7단 자동(수동) ▶ i40 saloon 2.0 GDI A/T(17.18인치 휠) 복합 11.4km/ℓ(도심 10.0km/ℓ, 고속도로 13.8km/ℓ) (CO2 배출량 154g/km) 배기량 1,999cc (공차중량 1,480kg) 7단 자동(수동) ■ 위 연비는 표준도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감량,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전차중량은 지평/대리점의 카리스타를 통해서만 판독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빠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관리 서비스는 blue hands가 책임지겠습니다
화천/해곡/불우/정암/개마/서호/신/진/금/동/불우/포인트/간인/서비스



신동빈 롯데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황금알을 낳는 거위’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유통업계 회장님들의 혈투가 시작됐다. 불황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면세점 시장의 장악을 위해 톡론 베풀어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유통업계 ‘별들의 전쟁’은 세계 1위 공항 면세점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시작됐다. 29일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대기업 가운데 최소 3곳, 중소·중견기업 중 4곳에 사업권을 내주는 제3기(2015~2020년) 면세점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축구장 2개 넓이에 달하는 이곳은 연간 매출 20억 달러(약 2조1000억원)로 4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한 면세점이다. 이번 사업자 선정 입찰에는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면세점, 중소·중견기업 등 14곳이 몰렸다. 업계에서는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신세계), 갤러리아 Duty프리(한화) 등이 대기업 계열사들과 동화면세점 SME'S(하나투어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엔타스 등 중소·중견기업, 태국계 키파워 등 해외 면세점 업체 3~4곳 등이 입찰의 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신세계면세점의 정용진 부회장이다. 지난해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던 김해공항

‘연 2조’ 황금알 낳는 거위 “인천공항 면세점 잡아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가장 적극적
“단기 적자 겪더라도 반드시 따낼것”

김승연 한화 회장 경영복귀 후 공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공격적 배팅

신동빈 롯데 회장 면세점 ‘수성’ 전력

면세점 입찰 신청 어제 마감

점수 산정후 내달 낙찰자 발표

출국장 면세점 입찰에서 연간 임대료인 500억원보다 140억원가량 더 많은 금액을 써내 차지할 정도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업계는 정 부회장이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매출 비중이 높은 면세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과감한 배팅을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점은 정 부회장의 숙원 사업”이라며 “단기적인 적자를 각오하더라도 기존 업체들보다 큰 액수를 써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인천공항 면세점의 수익성은 좋지 않다. 총 매출 2조900억원의 30%(6150억원)가 공항공사 임차료로 나갔다. 여기에 3기에는 15%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갤러리아 Duty프리를 운영하는 한화의 김승연 회장 역시 다크호스다. 그가 직접적으로 면세점 사업을 챙기는 건 아니지만 그룹 내부에서는 돌아온 승부사 ‘김승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작년 2월 계열사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통해 제주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따낸 이후, 작년 말 김 회장 경영 복귀가 맞물리면서 거침없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화가 지난해 비주력 계열사를 잇달아 정리하면서 한화갤러리아

역시 매각 소문이 나돈 만큼, 이번 입찰전은 갤러리아 생존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 부회장과 김 회장의 거센 도전에 롯데면세점의 신동빈 회장과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 등 기존 양강의 수성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의 경우 면세점이 그룹의 주요 수익원으로 떠오르면서 면세점 사업권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전체 매출이 4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도전자들의 ‘무협입성’을 허락치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 역시 입찰가를 공격적으로 써낼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 면세점이 적자 사업이긴 하지만, 엄청난 홍보효과와 브랜드 가치를 따져 볼 때 비싼 임대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작년에 마카오와 싱가포르 창이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따내면서 광복 행보를 보인 이 사장은 올해도 면세점 확대 전략을 지속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은 29일 의향서 신청 마감에 이어 30일에는 사업제안서와 가격 등을 제출받아 각각 6대 4의 비율로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낙찰자는 다음달 중 발표된다.

윤철규 기자 yoonck@

‘금호고속 매각’ IBK PEF-금호아시아나 갈등

“구사회 경영 방해”… “대우건설 실수 만회 무리수” 법정비화 가능성

금호고속 매각을 놓고 IBK-케이스톤 사모펀드(PEF)와 금호아시아나그룹 간 감정 대립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IBK-케이스톤 PEF는 29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고속 경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EF 측은 금호고속 사무직원들로 구성된 ‘구사회’가 금호고속의 각종 인허가 서류에 대표이사 전결 사안을 집행임원의 임의적 권한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임 대표이사의 출근을 일방적으로 저지하고, 대표이사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금호고속에 대한 PEF의 경영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PEF는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의한 금호고속 매각 방해 행위 및 기업가치 훼손 등의 이유로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해임했다. 이후 IBK투자증권의 김대진씨와 케이스톤과 트너스의 박봉섭씨를 공동대표이사로 임명한 상태다.

조남호 기자 spdrn@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PEF의 행동이 대우건설 매각 당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무리수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해 7월께 대우건설 주가가 1만원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대다수 유한책임투자자(LP)가 매각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매각을 건의했는데, PEF가 이를 묵살한 뒤 대우건설 주가 급락으로 LP 수익을 탈실이 어려워지자 PEF가 금호고속을 고가에 매각해 대우건설 손실분을 보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는 또 2012년 금호고속 지분 매각 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에 금호고속 대표이사 선임 권한은 금호아시아나에 있다고 명시했음에도, PEF가 김성산 전 대표와 일부 임원을 해임해 SPA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PEF가 설립 목적을 잊은 채 오로지 수익을 내기 위해 연이은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금호고속 임직원 및 임계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범인을 찾아라”… LG전자 뉴욕·런던서 이색 이벤트



LG전자가 ‘완벽한 화질로 밝혀낸 진실’이라는 주제로 이색적인 글로벌 소셜 캠페인을 전개한다. LG전자는 30일 미국, 영국, 한국 등 10개국에서 고객 참여형 글로벌 소셜 캠페인 ‘누가 제니의 결혼식을 망쳤을까?’를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사실 탐정이 OLED TV와 ‘G3’의 초고화질 화면으로 결혼식 동영상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결혼식을 망친 범인을 찾는 과정을 담았다. LG전자는 내달 말까지 한달 간 뉴욕 타임스퀘어 및 런던 피카딜리 광장에 위치한 LG전관판에 홍보 영상을 상영해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캠페인 활동을 알릴 계획이다.

이통3사 실적, 이상철만 웃었다

LGU+ 지난해 영업이익 5763억 6.3%↑… 유무선·IPTV 등 성장세



이상철 LGU+ 부회장

SKT는 9.2%↓… KT 적자전환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단통법 시행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풍작을 거뒀다. 반면 황창규 KT 회장과 장동원 SK텔레콤 대표의 지난해를 쓰디쓴 한 해로 기억하게 됐다.

KT는 30일 상반기 명예퇴직에 따른 비용 등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2918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 전년대비 적자 전환했다. 30일 공시했다. 당기 순손실 규모는 9655억원으로 전년대비 적자 폭이 커졌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23조 4215억원을 기록했다.

KT는 무선·미디어·금융 분야에서 성장했지만 유선과 상품수의 하락 등의 여파로

전체적으로는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도 지난해 손에 쥔 수확물이 거의 없었다. 이 회사의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8251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떨어졌다. 같은 기간 매출은 17조 1638억원으로 3.4% 늘었고, 순이익도 1조 7993억원으로 11.8% 증가했다.

영업이익 감소는 가입비 폐지와 멤버십 혜택 확대에 인한 수익성 악화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높이 자랑할만한 실적을 내놓았다. 지난해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3% 늘어난 5763억 3800만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9% 줄어든 10조 9998억원, 당기순이익은 18.5% 감

소한 227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LG유플러스는 유무선 IPTV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무선 매출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5조 2117억원을 기록했다. LTE 가입자와 서비스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액) 증가에 따른 서비스 매출 증가 덕분이다. 유선 매출 역시 TPS(IPTV·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 사업과 데이터 사업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3.2% 상승한 3조 1574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타사와 달리 4분기 영업이익이 늘었다. 직전분기 대비 9.2% 개선된 1906억원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망집속 매출과 수수료 정산분이 4분기에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박성제 기자 psj@

쌍용건설 7전8기 끝 새주인 찾았다

두바이투자청과 M&A 본계약
3~4월경 회생절차 졸업 예상

쌍용건설이 우여곡절 끝에 두바이투자청(ICD)과 M&A 본계약을 체결했다. 쌍용건설은 향후 회생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인 집회와 법원 인가, 채권 변제 등이 완료되는 빠르면 오는 3월말 회생절차를 졸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는 쌍용건설에 대한 ICD의 투자계약 허가서를 승인함에 따라 29일 최종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쌍용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ICD는 1월 5일부터 1월 26일까지 3주간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정밀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빠르면 2월 중순경 본계약이 체결될 것인 업계의 전망보다 일정이 단축된 것은 쌍용건설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영업력 복원을 기대한 법원과 ICD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쌍용건설은 투자자 유치 7전 8기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됐다. 쌍용건설

의 새 주인이 될 아랍에미리트(UAE)의 2대 국부펀드 중 하나로 운용 자산만 약 1600억 달러(약 175조 원)에 달하는 ICD는 자산기준 UAE 1위 은행인 Emirates NBD(ENBD), 국영기업인 에미리트 항공(Emirates Airline)과 에미리트 석유공사(ENOC) 등 총 30여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투자 활동이 인가 이후 국내외에서 약 1조원의 공사를 수주하는 등 핵심 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UAE는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추진 중인 초대형 개발사업과 2020년 두바이 EXPO를 추진하면서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시공사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쌍용건설이 해외사업을 통한 이익 실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은 주인인이었던 국내 PF 우발채무를 회생절차 과정에서 완전히 해소했고 지난해 7월 25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국내외에서 약 1조원의 공사를 수주하는 등 핵심 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QM3’ ‘임팔라’ 국적은?

車협회 ‘국산’ 완성차는 ‘수입’

국내 완성차업체의 수입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들 차량의 국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올해 하반기 모회사 GM의 미국 공장서 생산되는 ‘임팔라’를 국내에 수입 판매한다.

한국지엠은 지난해부터 임팔라를 들어와 도로 주행 등을 실시하며 한국 시장도 입 시장성을 검토하고 있다. 임팔라는 한국지엠의 대형 세단 ‘알페온’을 대체할 전망이다. 임팔라는 미국 시장에서 연간 16만대 가량이 팔리는 인기 대형차종으로 2.4ℓ 예코텍 엔진과 2.5ℓ 예코텍 엔진, 3.6ℓ V6 엔진 등 3가지 라인업에 전륜 5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된 차량이다.

르노삼성자동차는 2013년 12월부터 르노의 스페인 공장서 생산되는 ‘QM3(유럽명 캬체)’를 수입 판매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내년 초 르노의 ‘클리오’나 ‘에스파스’의 수입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모회사가 외국계 회사인 국내 완성차업체의 수입 판매가 늘면서 통계 논란도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국내 제조사의 수입 판매를 국산차로 집계하고 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회원사의 보고를 그대로 통계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차량의 판매가 늘면서 국내 완성차업체 간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QM3는 지난해 1만8000여대가 국내에 판매됐다. 지난해 수입차의 전체 판매가 19만 6000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QM3의 국적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통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포스코 영업이익 ‘3조’ 회복
이익률 증가 0.1%P 그쳐

포스코가 지난해 영업이익 3조원을 기록하며 2년만에 3조원대로 올라섰다. 포스코는 지난해 매출액 65조 984억원, 영업이익 3조 2135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2013년과 비교할 때 매출액은 5.2%, 영업이익은 7.3% 각각 증가했다.

포스코의 영업이익은 2010년 5조 5525억원, 2011년 5조 467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2012년 3조 6531억원으로 추락했다. 이어 2013년에는 얼얼 악화로 심해지면서 영업이익은 2조 9961억원으로 더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을 30%대로 높이면서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고객의 요구를 제품 개발 단계부터 반영하는 솔루션 마케팅을 통한 판매량도 점차 늘어난 것도 수익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포스코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개선됐지만 영업이익률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4.9%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포스코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 11.6%를 기록했으나 2011년 7.9%, 2012년 5.7%, 2013년 4.5%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LED시장 밝아지나

中企 적합업종 해제…상생협약

LED 조명기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서 해제되고, 자율 상생의 길을 걷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9일 63스퀘어에서 LED 조명기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LED 조명기구 시장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중소업체 측은 한국조명공업협회·중소·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한국LED보급협회 3개 단체가, 대기업에에선 갤럭시알렉스·로닉스·동부라이텍·삼성전자·아이콘트론스·SKC·이팅·LG전자·포스코LED·한솔라이팅·현대LED 등 9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기업은 민수시장에 참여하고, 관수시장은 자율적으로 진입을 자제기로 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과의 OEM·ODM 협력과 국내 중소기업과의 기술개발, 마케팅, 투자, 판로, 정보공유 등을 개발, 지원할 방침이다.

김정유 기자 thec98@

회의실에서 우체국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 투자설명회를 통해 우분은 광고, 판매대행, 복지서비스, 노후 우체국의 재개발, 우체국 공간과 창구 임대 등 여러 분야에 서 제휴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규 사업이 우체국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우체국, 광고·판매대행 등 신규사업 추진

그간 우편·예금·보험에만 집중했던 우체국이 제2도약을 위해 탈바꿈을 시도한다.

우편과 금융산업 환경이 변하며 새로운 사업 발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해 우체국 자원의 부가 가치를 높

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정부 3.0과 창조경제의 대표적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중앙우체국 대

KT 공격적 마케팅에 SK텔레콤도 지원금 확대 검토

아이폰5S·G3비트·갤S4도 ‘공짜’

단통법 시행후 멸종 ‘공짜폰’ 다시 등장

이통사, 저가요금제 지원금도 상향 조정

출시 15개월 지나 단통법 규제 안받아

재고 소진·알뜰폰 급성장 견제 의도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멸종 위기를 겪던 ‘공짜폰’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다. 재고 소진 필요성과 함께 알뜰폰의 급상승세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3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선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스마트폰들이 공짜폰으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가장 눈길을 끄는 공짜폰 기종은 아이폰5S이다. KT는 지난 28일부터 아이폰5S의 공시지원금을 기존 22만6000원에서 81만4000원(순완전무한77요금제 기준)으로 대폭 올렸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81만4000원인 아이폰5S 16GB는 공짜폰됐다. 32GB와 64GB 기종은 할부원금이 각각 13만2000원, 26만4000원으로 폭 떨어졌다. 공시지원금에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개별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12만2100원)을 포함하면 32GB까지도 사실상 공짜로 구입할 수 있다.

KT의 이 같은 공격 마케팅에 SK텔레콤도 아이폰5S 지원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지원금 경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다. 3만원대 수준의 저가 요금제에서도 공짜폰이 등장했다. 저가 요금제의 경우, 알뜰폰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통3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보다 월등해 가입자 유출이 급증한 탓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내놓은 통계를 보면,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8%를 넘어서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알뜰폰 점유율이 10% 이상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고가 요금제에서만 대규모 지원금을 주던 이통3사가 저가 요금제에서도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KT는 3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LG전자 스마트폰 ‘G3 비트’(출고가 29만7000원)에 공시지원금 26만7000원을 더해 할부원금 3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유통점이 자체 지급하는 지원금까지 합하면 사실 무료다.

SK텔레콤은 같은 요금제 기준으로 갤럭시S4 LTE-A(출고가 60만5000원)에 공시지원금 52만8000원을

공짜폰

※출처: 착한통신



기종	통신사	요금제	출고가	지원금	합계(대리점 지원금 포함)
아이폰5S	KT	77요금	81만4000원	81만4000원	0원
G3비트	KT	3만원대	29만7000원	26만7000원	0원
갤S4 LTE-A	SKT	3만원대	60만6000원	52만8000원	0원
베가 시크릿업	SKT	3만원대	24만2000원	21만1000원	0원
베가 시크릿노트	SKT	3만원대	29만7000원	25만9000원	0원
갤럭시 윈	SKT/LGU+	3만원대	29만7000원	25만9000원	0원
갤럭시코어	KT	4만원대	17만6000원	15만4000원	0원
F70	LGU+	3만원대	25만9600원	23만8000원	0원

지급, 할부원금을 7만7000원까지 내렸다. 이 단말기 역시 유통망 지원금을 더하면 공짜폰이 된다.

베가 시크릿 업·시크릿노트·갤럭시윈·갤럭시코어·F70 등 인기가 많은 보급형 단말기 역시 저가 요금제를 택하더라도 한층 확대된 지원금 덕에 3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신폰에 대한 공시지원금도 대폭 올리는 추세다.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출시된 갤럭시S5 광대역 LTE-A에 대해 3만원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공시지원금 27만원의 지원금을 실었다. 갤럭시 알파 역시 이통사별로 25만~27만6000원의 지원금이 실려 고가요금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

미래창조과학부 통계를 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작년 10~12월 3개월간 3만원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평균 56.3%로 법 시행 전 7~9월(49.0%) 대비 5%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가 이통서비스에 최초 가입할 때 선택하는 요금제 평균도 4만5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저가 요금제 수요가 한층 두터워졌다는 평가다.

박성제 기자 psj@

전립선암 치료제시장 뜨거워진다

아스텔라스 ‘엑스탠디’ 첫 건보 적용…대웅 ‘루피어’ 오리지널 바짝 추격

종근당도 개발 착수

올 들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전유물이던 국내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에서 제약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 제약사가 등장한 데다 국내 제약사도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면서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자사의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탠디연질캡슐(성분명 엔셀루타마이드·이하 엑스탠디)’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서 국내 남성 암 증가율 2위인 전립선암 치료에 새 지평을 열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엑스탠디를 위험분담제(환급형) 대상 약제로 지정, 지난해 1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이 보험적용 전 월 투약 비용(1박스) 기준 약 400만원에서 보험적용 후 약 16만5000원으로 대폭 줄었다. 엑스탠디는 전립선암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남성호르몬 안드로겐의 수용체 신호전달을 차단해 암세포 증식을 막는 약물로, 이전에 ‘도세탁셀(탁소텔 외 다수)’로 치료받았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다.

또 대웅제약이 바이오벤처기업 펠트론과 공동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탠디연질캡슐(원쪽)’과 대웅제약이 바이오벤처기업 펠트론과 공동개발한 ‘루피어 데포주(이하 루피어)’.

개발한 ‘루피어 데포주(이하 루피어)’가 일본 다케다제약의 오리지널 전립선암 치료제 ‘루프린 데포주’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특히 최근 1년간 같은 용량(3.75mg)의 제품만 비교해봤을 때, 루피어의 매출액은 이미 루프린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루피어는 전립선암·유방암·자궁근종·자궁내막증에 효과를 보이는 루프롤리드 성분의 함양제로, 서방형 분무건조 공법으로 제조됐다. 이 공법은 약물과 생분해성 고분자를 용매에 녹인 후 건조한 공기 속으로 내뿜어 인체 내에서 약물이 천천히 방출될 수 있도록 입자를 만드는 방법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다.

또 종근당도 지난해 전립선암 치료제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근당은 자체 개발 물질 ‘CKD-830’에 대한 임상 1상 진입을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외국 의약품 의존도가 높은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에서 국산 신약 탄생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

강인호 기자 kangih@



“기회의 땅”...모바일게임 중국행

13억 인구…한해 시장규모 4조원

네오위즈·게임빌 등 잇따라 진출

국내 모바일 게임이 중국 시장에 잇따라 진출, 마케팅 폭을 넓혀가고 있다. 게임업체들은 포화 상태의 국내 시장에서 중국으로 눈을 돌리면서 13억 인구를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네오위즈게임즈, 컴투스, 게임빌 등 게임회사들은 중국에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며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웹젠, 한빛소프트, 엠게임 등도 중국에 모바일 게임을 선보이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던 터라, 중국 내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게임빌은 ‘별이되어라!’ 중국 현지테스트를 마치고 내달 출시를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다. 게임 출시에 앞서 진행된 사전 예약이벤트에는 100만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려 인기를 실감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 4억명 이상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텐센트 게임즈

의 위챗 플랫폼과 5억명의 쿠키모바일을 통해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라 가입자 확보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네오위즈게임즈는 모바일 RPG ‘핑거나이츠’에 대해 중국 바이두모바일게임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핑거나이츠는 지난해 6월 국내에 출시된 지 단 하루 만에 카카오키프 게임하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핑거나이츠는 현지화 과정을 거친 뒤 올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네오위즈게임즈의 모바일 리얼 낚시 게임 ‘청풍명월’과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천공의 아레나’는 최근 중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며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현지화에 맞춘 게임 내 콘텐츠와 중국 최대 안드로이드 앱 마켓 등을 통한 게임 공급으로 중국 내 유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은 4조원 규모로 해마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모바일 게임시장이 성장하면서 지난해부터 국내 게임사들이 속속 진출하고 있다”며 “중국 내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중국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tlatio@

히비 엇갈린 글로벌 전자상거래 ‘빅2’

알리바바 작년 4분기 매출, 전망 밑돌아… 中정부와 불협화음도 부담 주가 9% 급락

아마존 2.14억달러 흑자 전환·주당 순익도 전망치 상회… 시간외 거래 14% 폭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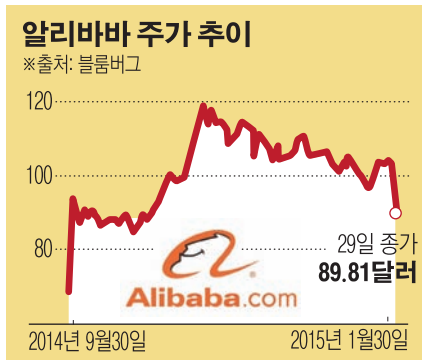
‘글로벌 전자상거래업계 빅2’인 알리바바그룹의 마윈 회장과 아마존 제프 베조스 최고경영자(CEO)의 히비가 엇갈리고 있다.

알리바바는 29일(현지시간) 매출 실망감과 더불어 중국 정부와의 관계가 이상신호를 보이면서 주가가 9% 가까이 급락했다. 반면 아마존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투자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알리바바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9억6400만 달러(주당 37센트)를 기록했다. 특별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익은 81센트로, 시장 전망인 75센트를 웃돌았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알리바바의 매출이 시장 전망을 밑돈 것에 주목했다. 지난 분기 알리바바 매출은 42억2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0% 급증했으나 월가 예상치인 44억5000만 달러에는 못 미쳤다.

ICBC인터내셔널리서치의 나여우 애널리스트는 “매출 증가폭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적다”며 “점점 더 많은 상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 광고하기 시작해 매출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 앱은 광고 공간이 작아서 일반 PC보다 수수료가 낮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전날 발표한 백서에서 “알리바바가 짝퉁과 불법 제품 판매를 묵인하고 있고 직원들이 뇌물을 수수하는 등 부패의 온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이충신 알리바바 부회장은 이날 실적 발표 자리에서 “SAIC의 비판이 매우 불공정하다”며 “정부 당국자를 정식 고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알리바바의 주가는 전일 대비 8.8% 급락한 89.91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알리바바 기업공개(IPO)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주가 하락에 마윈 회장 재산도 하루만에 14억 달러(약 1조5300억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마존은 수익성 감소라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아마존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2억1400만 달러(주당 45센트)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전분기의 4억3700만 달러(주당 95센트) 순손실에서 흑자 전환했다. 특히 주당 순익은 주당 18센트인 월가 전망을 크게 뛰어넘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93억3000만 달러로 전문가 예상치 296억8000만 달러를 밑돌았지만 시장은 흑자 전환에 더 주목했다. 마일 퍼처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실적은 아마존이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마존 주가는 이날 나스닥에서 전일 대비 2.6% 상승한 311.78달러로 마감, 시간외 거래에서는 14% 폭등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구리·철광석 가격 폭락 쇼크

글로벌 ‘퍼펙트스톰’ 경고등

中부동산 침체·강달러 악재

자산가치 떨어지며 매도세

국제 상품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구리와 철광석 값이 브레이크없이 추락 중이다.

중국의 경기둔화, 세계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 확대,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구리와 철광석 가격이 5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시에테제네랄은 부정적인 요소에 의한 ‘퍼펙트스톰’을 우려했다.

구리와 철광석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현상은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올 들어서 유가하락 등 악재가 겹치면서 그 기조가 심해졌다.

건설경기의 지표인 구리가격은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이달에만 14.4% 하락했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하락폭인 14.7%를 거의 따라잡은 수치다. 29일 기준 3개월물 구리가격은 톤(t)당 5395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전일 대비 89달러(1.6%) 하락한 수준이다.

철광석도 구리와 같은 처지다. 철광석 값은 올 들어서만 62.7달러(11.9%) 떨어졌다. 철광석 소비가 많은 중국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한 것이 가격하락 원인으로 작용한 것. 2000년대 초반 금속 소비규모가 늘면서 금속 값이 상승할 것이라 장밋빛 전망에 투자가 쏠렸던 분위기와 대조된다.

글로벌 리포트

애플 경제가치 ‘신중국 GDP’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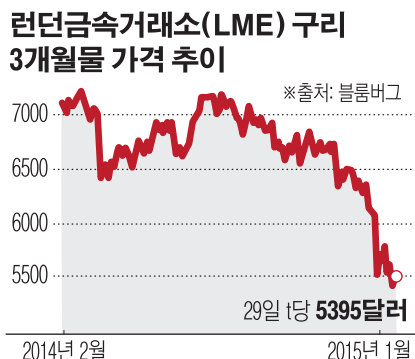
애플의 경제적 가치가 일부 신흥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애플의 경제적 가치가 870억 달러(약 94조 9200억원)로 집계됐다고 국제통화기구(IMF)의 자료를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애플의 경제적 가치는 GDP 규모가 1000억 달러 수준인 에콰도르, 슬로바키아와 불과의 차이, 오만(810억 달러), 아제르바이잔(780억 달러)과 같은 신흥국은 일찌감치 제쳤다.

또한 애플의 유동자산(주식 등) 규모 역시 웬만한 신흥국가의 외환보유고, 국방부드 규모와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애플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애플은 1780억 달러 규모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美 슈퍼볼 티켓, 600만원 넘었다

내달 2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최대 스포츠 축제인 슈퍼볼 티켓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29일 보도했다. 티켓 예매 사이트 시트키에 따르면 입장 티켓 평균 가격은 지난 18일 4274달러(약



중국에서 구리와 철광석의 수요가 감소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서 비롯됐다. 철광석이 건축자재인 철을 만드는 주요 원재료인데, 부동산 침체로 건설경기가 동시에 정체되면서 철광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이다. 이에 중국당국은 지난해 철 수요가 3.4% 감소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철 수요가 줄어든 것은 14년 만에 처음이다.

여기에 달러 강세도 투자자들이 구리와 철광석을 외면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달러 강세가 구리와 철광석 거래 가격을 높이면서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준 것이다. 미국 달러화 가치는 올 들어서 2.5% 상승했다.

국제경제자문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캐롤라인 베인 상품분야 수석 애널리스트는 “유가 하락 역시 금속 값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구리, 철광석에 대한 자산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매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패스트푸드’에 발목 잡힌 맥도날드… 빅맥지수 사라지나

건강 트렌드 뒤처지며 소비자 외면… 돈 톰슨 CEO 경질

이스터브룩 CEO 내정자, 웰빙 메뉴 개발 적극 나설듯

세계 물가와 통화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 역할을 하던 ‘빅맥지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스�티브 이스터브룩 신임 맥도날드 최고경영자(CEO)가 지역별, 연령대별 메뉴 개발로 패스트푸드 이미지를 쇄신할 것으로 보여 빅맥지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맥도날드는 28일(현지시간) 돈 톰슨 CEO가 3월 1일부로 퇴임하고 후임으로 스�티브 이스터브룩 수석부사장 겸 최고브랜드책임자(CBO)를 내정했다는 인사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맥도날드가 지금까지 거뒀었던 성공과 그 성공을 이끌었던 시스템이 톰슨 CEO에게는 족쇄가 됐다고 분석했다. 맥도날드 임원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같은 맛을 보장해주는 회사의 시스템에 자부심을 가졌다. 과도한 변화는 이런 시스템을 깰 수 있다는 우려에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시스템을 유지하는 쪽이 이겼다. 블룸버그는 이것이 맥도날드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맥도날드의 패스트푸드 시스템이 거대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변화에 소극적이 됐다는 것이다.

톰슨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CEO로 있으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맥도날드가 간단한 치킨맥플라이라는 메뉴를 개발하는 데도 2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통신은 꼬집었다. 그 사이에 치폴레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주 찾는다는 파이브가이즈, 웰빙 버거를 추구하는 셰이크 등 더 신선하고 건강해 보이는 음식들로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톰슨 CEO도 뒤늦게 시스템에 변화를 꾀하려 했으나 소비자들의 취향과 거리가 먼 것이어서 외면을 받았다.



오는 3월 퇴임하는 돈 톰슨 맥도날드 CEO, 블룸버그

이 걸렸다고 통신은 꼬집었다. 그 사이에 치폴레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주 찾는다는 파이브가이즈, 웰빙 버거를 추구하는 셰이크 등이 더 신선하고 건강해 보이는 음식들로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톰슨 CEO도 뒤늦게 시스템에 변화를 꾀하려 했으나 소비자들의 취향과 거리가 먼 것이어서 외면을 받았다.

빅맥지수

맥도날드의 대표적 햄버거인 빅맥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각국의 상대적 물가수준과 통화가치를 비교하는 지수를 말한다.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레시피로 만들기 때문에 어디서든 같은 가격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구매력 패리티(PPP)’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스터브룩 CEO 내정자가 전임자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다른 길을 갈 것임은 분명하다는 평가다. 그는 1980-2000년에 출생한 이른바 밀레니엄 세대에겐 맥도날드가 다시 매력력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핵심 고객이었던 젊은 층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것. 이에 맥도날드가 웰빙 메뉴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대중요금 인상 반대”

뿐만 상파울루 시민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시민들이 29일(현지시간) “인상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요금 인상 반대 시위행진을 하고 있다. 경기침체,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중교통요금까지 올려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상파울루의 버스요금은 3개월(약 1251원)에서 3.5개월(약 1460원)로 올랐고 리우데자네이루는 3개월에서 3.4개월로 인상됐다.

상파울루/AFP연합뉴스

3대 신용평가사 ‘그리스 신용등급 강등’ 경고에도…

ECB 낙관론에 힘 받은 아테네 증시 반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가 그리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잇따라 경고했다. 그러나 그리스 아테네증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낙관론에 힘입어 반등했다.

피치는 29일(현지시간) 그리스 새 정부와 대외채권단과 채무재조정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다음 신용등급 조정일인 5월 15일에 그리스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블라스 렌윅 피치 유럽국가신용평가대표는 이날 “양측의 협상에 진전이 없거나 결렬한다면 등급 하향 요인이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피치는 현재 그리스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인 ‘B’로 매기고 있으며 최근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S&P도 전날 그리스 신용등급을 감시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새 정부와 채권단

과 합의하지 못하면 등급을 강등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무디스도 지난 27일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좌파연립(시리자)이 승리한 것은 은행 자금조달과 유동성 유지 능력에 타격을 입힐 수 있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사의 잇단 경고에도 아테네증시는 전일 대비 3.2%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 은행들이 현재의 불안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힌 영향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오바마 “시퀘스터 무력화” vs 美상원 “키스톤 법안 통과” 힘겨루기

공화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비해 의석확보 총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 무력화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오바마 대통령이 반대하는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을 미국 상원이 통과시켜 세해 벼두부터 양측의 힘겨루기가 가열될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한선보다 7%, 740억달러(약 80조9000억원) 많은 1조910

억달러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블로그를 통해 “의회가 내 제안을 거부하고 자동 예산삭감조치를 되돌리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우리 경제와 군대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구상에 대해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어 양측 간 예산논쟁이 격화될 조짐이다. 같은 날 미국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고 키

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을 통과시켰다.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사업은 캐나다 앨버타 주와 미국 텍사스 주의 멕시코만 사이 2700km를 잇는 것으로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여러차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해 법안이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미 의회가 3분의 2의 표결로 이를 무효화할 수 있어 아직 의석 3분의 2인 67석을 확보하지 못한 공화당이 의석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체온만 있으면 배터리 방전 걱정없죠”

유네스코 10대 IT기술 선정 조병진 KAIST 연구팀 열전소자가 전기생산…車·공장 등 폐열도 활용가능

KAIST 전기·전자공학과 조병진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체온 전력 생산기술이 세계 10대 정보기술(IT) 혁신 기술에 선정됐다.

KAIST는 유네스코가 에너지·환경·교육 등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새로운 IT 혁신기술 10개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는 '유네스코 Netexplo award 2015'에 조 교수 연구팀의 '웨어러블 발전소자'가 포함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이 기술은 유리섬유 위에 열전 소자를 구현한 것으로 체온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발표 당시 미국의 유력 방송인 ABC와 영국의 저명 신문인 데일리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웨어러블 기기는 미래 전자기기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주 충전해야 하는 배터리 문제가 확산의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웨어러블 발전 소자는 체온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쉽게 전원을 공급할 수 있으며 매우 얇고 가볍다.

자동차·공장·항공기 등 폐열이 발생하는 다양한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도 적합하다는 게 연구팀 설명이다. 특히 헬스케어와 의료용 패치 등에 활용하면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KAIST 교원기업 '테크웨이'를 창업했다. 최근에는 대전장조경제혁신센터의 '드림 벤처스타 기업'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조병진(왼쪽) KAIST교수와 웨어러블 발전소자, 사진제공 카이스트



10대 IT 혁신기술은 200여명에 이르는 전 세계 IT 전문가의 투표를 통해 선정, 10개 기술 중 그라프리는 오는 31일까지 네티즌 온라인 투표로 결정된다. 시상식은 다음달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한편, 이번 유네스코가 선정한 10대 IT 혁신기술은 △KAIST 웨어러블 열전소자(한국) △중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벌목 근절(미국) △자전거 친화 도시 개발 앱

(칠레) △젓가락 이용 음식 성분 분석(중국) △DB 활용 초소형 성분 분석기(이스라엘) △이메일 및 각종 SNS 통합 채팅 스트림(미국) △패션소재제품으로 만드는 3D 프린터(토고) △빅데이터를 통한 교육문제 해결(미국) △사진촬영으로 수학문제 해결(크로아티아) △에볼라 확산방지 정보 앱(나이지리아) 등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한라산을 뒷산처럼 오른 남자

고석범씨, 12년간 1015회

“단지 한라산이 좋아서 하루 두세 차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한라산 지킴이로 활동하며 산에 진 빚을 갚고 싶습니다.”

한갑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젊은이 못지 않은 다부진 몸매의 고석범(59)씨가 한라산에 1000회 이상 오른 이유에 대해 이같이 자신 있게 설명했다.

고씨는 2002년 12월부터 지난 주말인 25일까지 12년 2개월간 해발 1950m인 한라산 정상에 총 1015회나 올랐다.

고씨는 주말과 공휴일에 어김없이 산행했으며, 산에서 내려왔다가도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 하루 두세 차례 산행한 적도 있다.

그는 보통 오전 6시에 한라산 성판악 코스 시작점인 관리사무소를 출발해 정상에 오른 뒤 낮 1시 이전에 관리사무소에 내려와 다시 정상으로 향한다. 일반인이 보통 왕복하는 데 10시간이 걸리는 한라산 성판악 코스 19.2km를 4시간 30분에 주파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고씨는 한라산에 오를 때 산악 장비와 함께 지킴이로 활동하기 위한 장비까지 이



연합뉴스

고 간다.

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담을 배낭을 따로 챙긴다. 10년 전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딴 이후로는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 빠진 등산객들을 만나면 도움을 주려고 구급 처치를 위한 붕대와 약품도 담아 가는 것이다.

산을 잘 타는 비결에 대해 고씨는 “단지 쉬지 않고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체력만 있으면 된다”며 “산을 자주 오르다 보면 누구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인민일보, 시진핑 딸 사진 삭제…왜?

지나친 관심 부담에 통제하듯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가 29일(현지시간) 웨이신(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 그리고 딸 시밍제(23) 등의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으나 몇 시간 만에 삭제됐다.

이날 인민일보는 시 주석 딸의 어린 시절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은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서만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신문이 공개한 사진 중에는 시 주석의 집무실에 배치된 사진 몇 장도 포함됐다.

이번 사진 공개는 지난 2007년 10월 지역신문인 '잠강만보'에 실렸던 펑 여사의 행복한 가정생활이란 인터뷰 기사를 인민일보가 인터넷을 통해 다시 소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펑 여사는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의 첫 만남과 결혼 후 가정생활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가 29일(현지시간) 웨이신(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공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딸 시밍제 사진, 연합뉴스

공개된 사진은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으나 오후부터는 인터넷 검색이 불가능해지고 인민일보의 웨이신 공식계정에서도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이 시 주석 가족과 딸 등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필요한 관심이 증폭되는 것을 막고자 사진과 기사 통제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첫 여성 국립공원사무소장에 손영임 치악산 사무소장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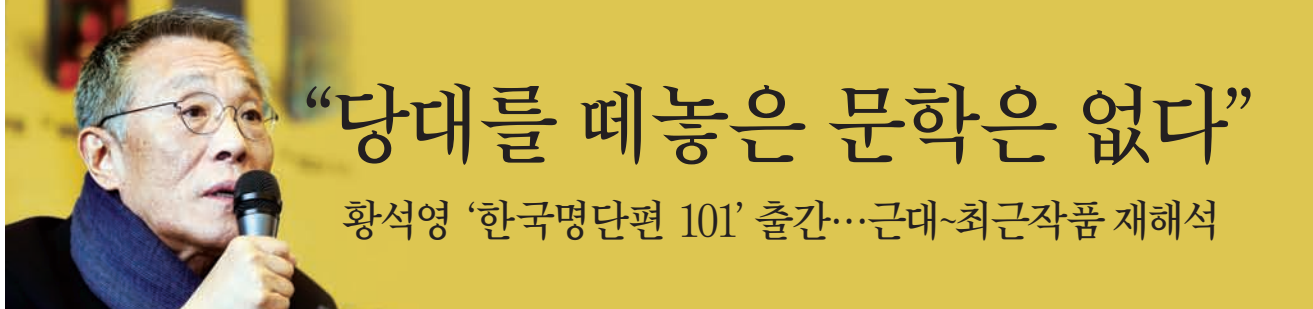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 이래 첫 여성 국립공원 사무소장에 배출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9일 정기 인사에서 손영임(51·사진) 설악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3급)을 치악산국립공원 사무소장(2급)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성이 국립공원 사무소장에 오른 것은 1987년 공단 설립 이후 처음이다.

손 신임 소장은 1987년 공단 설립과 함께 입사한 공제 1기로, 2007년 공단에서는 여성 처음으로 3급으로 승진해 공단 본부 정보화전략팀장과 노사협력담당관 등을 거쳤다. 북한산·설악산 등에서도 일하며 현장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다. 이번에 맡게 된 치악산국립공원 사무소장직은 치악산을 찾는 탐방객 안내, 지역 생태 보존, 재산사고 예방 등을 총괄 관리하는 자리다.

손 소장은 “여성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한국문학은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과 더불어 삶의 조건들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문학들로, 그렇지 않은 문학이 없었습니다.” 소설가 황석영(72)이 한국문학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부터 최근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101편의 단편 소설을 당대의 눈으로 읽어냈다.

2011년 11월 11일 염상섭의 '전화'로 문학동네 네이버 카페에 연재를 시작한 그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이상의 '날개' 등 이미 고전이 된 단편 소설부터 김영하의 '흐름개', 김애란의 '서른' 등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다.

스스로 “모더니스트적 리얼리스트고, 리얼리스트적 모더니스트”라고 규정된 황석영은 모더니스트적 리얼리스트건 이 같은 명제를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석영은 29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황석영의 한국명단편 101'

서사력 약한 日·점열 센 中보다 한국문학 표현 세련되고 우수

(총 10편)의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근·현대 문학을 이렇게 정리했다.

젊은 시절 읽었던 '아슬푸레하게' 기억나는 소설을 3년간 다시 읽고, 전속하지 않은 젊은 작가들의 책도 접했다.

황석영은 “장편의 편린들이 모여 한 편의 풍속사, 사회사, 문화사가 저절로 형성됐다”며 “열권을 모두 읽으면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 지 파악할 수 있다”고 곁들였다.

애초 시리즈를 100편으로 기획했으나 소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편이 늘어 101편으로 마무리됐다. '100'이라는 완결성보다는 앞으로 더 추가될 새로운 고전의

출발을 알리는 '101'이 더 의미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일본은 서사의 힘을 왔었고, 중국은 '점열이 있다'며 '현재 우리 문화의 풍토가 완벽하게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다양한 형식의 문학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매우 세련되게 당대를 표현하고 있다'면서 한국 문학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작품의 문학이 서사가 붓물터지듯 한 1970년대와 유사하다고 본 그는 “당대의 소설을 읽는 건 자기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시대의 초상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3년간 '한국 명단편 101' 작업에 몰두한 황석영은 이제 자신의 작품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봄에 경장편을 발표할 예정이다. 죽음이 가까운 세대로서 이제 만년 문학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재석 기자 fugoo@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국제금융협력국장 김희정

◆고용노동부 ◇고위 공무원 전보 △국제협력관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 문기섭 △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이주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김영국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투병희 ◇고위 공무원 파견 △경제사회발전조사정위원회 이태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간선도로과장 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과장 김광택 ◇과장급 파견 △국민안전기획과장 정성환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공주우편집중국장 임영일

◆농촌진흥청 ◇승진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장 류성렬

◆통계청 ◇부처간 전보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이상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이급 승진 △성과관리실장 박기연 △안전방재처장 최승운 ◇2급 승진 △정보지원실장 주홍준 △환경관리부장 최병기 △환경기술부장 정정권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손영임 △미래창조과학부 △나공주 △충무부장 송형철 △인재개발부장 김철수 △공공기획부장 허영범 △탐방문화부장 이용민 △방재관리부장 이승찬 △공원시설부장 김

두한 △침사건립단장(TF) 박진우 △감사부장 김진태 ◇공원사무소장급 전보 △오대산 순통호 △월악산 신종두 △북한산도봉 이수식 △무등산 이영석 △지리산북부 안유환 △지리산남부 양기식 △경주 이수형 △한려해상동부 김중희 △가야산 윤용환 △다도해해상 김승희 △소백산북부 권철환 △월출산 김학봉 △무등산동부 김용무 △충북원기술원 송동주 △북한산생태탐방연구실장 정용상 △지리산생태탐방연구실장 안시영 ◇교육·과건 △국방대학교 김영태 △국민안전처(중앙재난안전상황실) 김상식

◆대한건설협회 ◇실장급 전보 △충무지원실장 조준현 △계약제도실장 이재식 ◇과건 △최상근 실장 △방파대학교 △진장옥 실장 △세종연구소 △임종구 실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구경북연구원 ◇연구본부장·실장 △대구연구본부장 장재호 △경북연구본부장 오창균 △상생협력연구실장 류형철 ◇대구연구본부 △창조경제실장 최재원 △사회문화실장 박은희 △도시환경실장 최영은 ◇경북연구본부 △창조산업실장 김병태 △지역발전실장 김종표 △농림수산실장 석태문 ○센터 △대구경북학센터 소장 이준근 △대경SOC센터 소장 권태범

◆전주대 △인문대학장 박균철 △사회과학대학장 윤찬영 △경영대학장·이부대 학장·한중경제통상연구소장 김승근 △의과학대학장 김중훈 △공과대학장 정영

제 △문화산업대학장·예술체육대학장 권수태 △문화관광대학장 심상욱 △사범대학장·교육대학원장 유평수 △선교신학대학원장 김원강 △특수대학원장 심동희 △인문과학종합연구소장 최희섭 △스마트 공간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장·X-edu 연구상미디어센터장·문화산업연구소장 한동송 △LINC사업부단장·창조경제지원센터장·EM연구개발단장 최용욱 △교육연구원장·교육지원부장 서재복 △기획부처장 심영국 △사회봉사센터장·e-북지관장 김광혁 △카운슬링센터장·인적자원개발센터장 이호준 △전주대 보조공학센터장 신현욱

◆계명문화대 △총장 보좌역 최준영 △국제교육원장 이상석 △산학협력연구소장 이원갑 △취업지원팀장 장동수 △교무팀장 문정남

◆아리랑국제방송 △T.V.편성팀장 김도현 △시사보도제작센터장 직무대행 박형실 △문화교양제작팀장 정여름

부음

▲이계윤(전 한국제분 대표이사 사장) 씨 별세, 이형욱(약사)·도범(이도범 치과의원 원장)·형병(건설공제조합 변호사) 씨 부친상 = 28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1일 오전 7시, 02-2258-5940

▲이찬홍(신한카드 영업총괄본부장)·북화·남희씨 부친상, 김영배(앤씨푸드 대

표)·신한운(한성전기 대표)씨 장인상 = 29일 오후,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5호실, 발인 31일 오전 7시, 051-711-4400

▲강석훈(법무법인 윤춘 변호사)·석운(삼성SDI)씨 부친상, 예동진(예동진치과 원장)·김의석(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씨 장인상 = 2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31일 오전 7시, 02-3010-2262

▲자일권(보합개발원 수석부장)·성숙·갑숙(퇴계원중학교 행정실장)·정례·글레씨 부친상, 최원규(점대개발 부장)·윤점식(대우건설 상무이사)·전경근(경기북과학고 행정실장)씨 장모상, 조성애씨 시모상 = 29일 낮 12시 30분, 고려대 안산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31일 오전 8시, 031-411-4441

▲이영호(신세계푸드 감사)·동호(서울대학교 명예교수)·대호(前 토지주택공사)씨 모친상 = 29일 오전 5시 30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5호실(1월 29일)·1호실(1월 30일), 발인 31일 오전 9시 30분, 02-3410-3151~3

▲박재성(전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장)씨 장인상 = 29일 오전 6시, 경북 울진의 료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31일 오전 8시, 054-785-7850

▲김동양(전 한국야구위원회 심판위원)씨 별세 = 29일, 원주 세브란스 기독교원 장례식장 2층 1호실, 발인 31일 오전 7시, 033-741-1991

BS금융, 부산 소외계층에 전통시장 상품권

BS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은 29일 부산 시청에 3억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3억원의 전통시장 상품권은 지역의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총 6000가구에 세대당 5만원씩 전달돼 설날 차례상 장보기 등에 사용된다. BS금융 계열사인 경남은행도 함께해 총 2억3000만

원을 울산과 경남지역에 전달할 예정이다.

성세한 BS금융그룹 회장(사진 오른쪽)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사업을 실시해 그룹 슬로건인 ‘희망을 주는 행복의 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우람 기자 hura@

한양대 신임총장에 이영무 교수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한양대학교 제14대 총장에 이영무(사진·61) 에너지공학과 교수를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신임 총장은 임덕호 13대 총장에 이어 3월 1일 취임하며 임기는 4년이다.

한양대 고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신임 총장은 1988년 모교 교수로 부임했다.

이 신임 총장은 “구성원의 장점을 창의로 발현시키고 그 성과를 구성원 사회 나아가 세상과 공유하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창의와 나눔의 경영으로 한양 100년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혜은 기자 euna@



임철순의
즐거운 세상

무릎을 꿇는 낙타처럼

무릎 이야기를 더 하고 싶다. 무릎은 작고 어린 내 자식에게는 보호와 양육의 울타리가 되고, 웃어른과 초월자에게는 몸과 마음을 다한 섬김과 존경을 표현하는 신체 도구가 된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 시리다지만 나이에 관계없이 “슬하가 쓸쓸하면 오뉴월에도 무릎이 시리다”는 속담이 있다. “자식도 슬하의 자식”이라는 말도 있다. “슬하에 자녀가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도 한다. 이제 는 잘 쓰지 않는 말이 된 슬하(膝下)는 무릎 아래라는 뜻이다.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움직이다가 부딪히고 다치는 아이를 가장 안타깝게 기르는 것은 부모가 다리를 오므려 무릎 안, 곧 슬하에서 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리고 기를 때가 자식이지 결혼해 떠나고 나면 남과 같다.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사돈의 8

촌이라 하지 않던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무릎에 앉는 기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부모의 무릎을 벗어난 아이는 일어서다가 앞으로 넘어지곤 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에는 줄리엣의 유모가 “아가, 앞으로 넘어졌니? 절이 들면 뒤로 넘어지겠지”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앞으로 넘어지다가 뒤로 넘어지는 중간에 무릎을 꿇을 줄 알게 되는 게 바로 철드는 게 아닐까.

사막에 사는 낙타는 모래바람을 뚫고 걷기 위해 눈썹이 길고, 물 없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분을 생산하는 지방질이 가득한 혹을 등에 지고 다닌다. 또 하나 두드러진 특징은 무릎에 두꺼운 굳은살이 박여 있는 것이다. 사막에 거센 모래폭풍이 휘몰아칠 때 낙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무릎을 꿇고 앉은 단봉 낙타’는 19세기 프랑스 유화를 보면 낙타가 경건한 동물을 넘어 현자라

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하느님 앞에, 부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사람은 그렇게 무릎을 꿇는다.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다. 야고보는 예수의 기도 생활과 부활을 보면서 의심을 버렸다. 그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야고보서 5장 16절)고 말했다. 다른 성서에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갈라디아서 1장 19절)고 기록돼 있다.

야고보처럼 기도에 열심인 사람을 ‘낙타무릎’이라고 부른다. 기독교인들은 “머리와 입과 손이 아니라



무릎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 세상의 악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 무릎으로 싸워 기도하라는 것이다. ‘낙타

무릎’이라는 찬송곡은 “내 무릎이 다 닳도록 기도할 테니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소서”라고 노래한다. 그러나 즐겁게 무릎을 꿇어라. 아니 무릎 꿇을 줄을 알아라. 꼭 하느님, 부처님과 같은 초월자나 절대자가 아니라도 존중하고 경배해야 마땅한 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사람이며 발전할 수 있는 인간이다.

시인 김충규(1965~2012)는 《대나무 앞에 무릎을 꿇어라》를 남겼다. ‘대나무 속이 왜 비어 있겠는가/ 나뉘어 비우고 비우기 위하여/ 사는 대나무들/ 비운 만큼 하늘과 가까워진다/ 하늘을 보라,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어찌 저토록 당당하게 푸르를 수 있겠는가/ 다 비운 자들만이 죽어 하늘로 간다/ 뒤편 채우려고 버둥거리는 자들은/ 당장 대숲으로 가라/당장, 대나무 앞에 무릎을 꿇어라(글부분 인용).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正論

지난해 브로드웨이 뮤지컬시장의 가장 핫한 아이콘은 신디 로퍼와 그녀의 ‘킹키부츠’였다. 환갑 나이의 신디 로퍼가 인생이 모작이라도 하듯 뮤지컬 작곡에 도전해 전 세계 뮤지컬 종사자들의 로망인 토니상을 거머쥐고 흥행 고공행진까지 누렸기 때문이다.

‘킹키부츠’는 드랙 퀸(여장 남성)들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강철 굽 부츠를 의미한다. 팝스타인 동시에 패션 아이콘이기도 했던 신디 로퍼다운 뮤지컬 소재다. 뮤지컬 ‘킹키부츠’는 망해 가는 신발 공장을 물려받은 아들의 고군분투 성장 드라마로 신디 로퍼의 파워풀한 음악뿐만 아니라 소재, 대사, 메시지에까지 잘 다듬어진 뮤지컬이다.

지금 브로드웨이의 또 다른 화제작은 뮤지컬 ‘더 라스트 ship’ (The Last Ship)인데 이번에는 스팅이다. 세계적 팝 싱어송라이터 스팅의 팬이라면 스팅이 지난 2013년 10년 만에 발매한 신곡 음반 ‘더 라스트 ship’을 들었을 거다. 백파이프, 아코디언, 피플러 등 목가적 악기를 잘 살린 영국 전통 포크와 재즈, 팝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음반과 똑같은 제목의 뮤지컬이 지금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고 있는 것. 음반에 이어 스팅이 직접 뮤지컬의 작곡과 음악감독을 맡은 데다 며칠 전까지 무대에 직접 서기도 했다. 스토리도 조전소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스팅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한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15년 만에 마을로 돌아온 남자가 자신이 버린 여인을 찾고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배를 만든다는 희망적인 휴먼 스토리다.

팝의 전설이 재탄생하는 뮤지컬 무대



이 유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뮤지컬스쿨 교수

‘킹키부츠와 ‘더 라스트 ship’이 두 브로드웨이 신작 공연의 공통점은 세계적 팝스타가 환갑을 넘긴 나이에 뮤지컬에 도전했다는 점, 그래서 내용이 갖는 완성도 높은 음악, 스스로의 삶을 작품에 반영한 소재,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주제 등 많다.

나이 60을 넘긴 세계적 두 팝스타의 뮤지컬 무대를 향한 자유로운 도전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 결국 놓치고 말았지만 스팅이 출연할 때 달려가 브로드웨이 현장에서 기립 박수라도 치고 싶었다. 뜨겁게.

그러다 문득 또래 동료들과 작은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던 1997년이 떠오른다. 당시 한국 뮤지컬시장의 기반을 다진 삼성영상사업단에 창작뮤지컬을 만들자고 용기 있는 제안을 했고 결

국 9억원의 제작비로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창작대중가극 ‘눈물의 여왕’을 만들었다. 지금처럼 뮤지컬 전문 배우도, 전문 스태프도 거의 없을 때여서 결국 영화배우 이해영, 전도연, 조민기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했는데 뮤지컬 전문 음악감독과 작곡가는 더 문제였다. 고민하다가 한국 록의 전설인 신중현씨를 찾아갔다. 서울 문정동의 지하스튜디오에 무조건 틀어박혀 때를 쓰듯 뮤지컬 작곡 의뢰를 한 젊은 기획자를 정성으로 맞이하고 뮤지컬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당시로는 엄청난 작곡료를 제시해 결국 신중현 선생의 뮤지컬 작업은 발발되고 말았는데 돌아켜 보면 거절이나 자존감을 애타려 정중히 표현한 것인 듯하다. 2003년에는 또 창작뮤지컬 ‘페퍼민트’ 제작을 끝내고 성공적 결과에 고무되어 산울림 뮤지컬을 만들겠다고 김창완씨 측과 저작권에 로열티 협의까지 했다. 그러나 곧바로 대학 교수의 삶을 살게 되면서 한국 팝의 역사인 거장들과의 뮤지컬 작업은 여전히 박제된 꿈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한국 팝의 거장들의 음악과 삶은 뮤지컬의 훌륭한 원천이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

조용필, 김창완, 들국화는 살아서 전설이 되고 있는 한국 대중음악의 대명사다. 그들의 음악은 몇 십 년 동안 한국인의 정서를 대변했고 한국인을 위로해 왔다. 그 음악적 자력이 뮤지컬 무대 위에서 또 다른 힘으로 한국인을 일어서게 하고 즐겁게 해 줄 수 있기를 꿈꿔 본다. 어떤 프로듀서든지 졸으니 누구라도 그들의 전설을 뮤지컬 무대에서 현실적 생명으로 새로 탄생시켜 줬으면 좋겠다.

오늘의 **배극낭** **www.baekn.com** tvN 월화드라마 ‘호구의 사랑’ 국가대표 수영여신 역 맡은 유이

배극낭닷컴은 29일 유이를 인터뷰했다. 유이는 tvN 새 월화드라마 ‘호구의 사랑’에서 연애기술 제로의 모태솔로 강호구(최우식)가 사랑하는 국가대표 수영여신 도도희 역을 맡는다. 유이는 “많은 분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 수영선수였던 것을 안다. 하지만 작품에서 한번도 보여 드린 적이 없다. 사실 한 번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도도희 역할이 들어와 ‘내 옷이다’ 싶었다. 놓치고 싶지 않았다. 현재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이는 원작인 동명의 웹툰을 언급하며 “처음에는 가녀린 원작 캐릭터 때문에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 시놉시스에서 당당하고 도도하고 성장하는 캐릭터의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며 “원작 캐릭터는 굉장히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여성스러운 캐릭터인데 각 색 과정에서 당당한 카리스마를 지닌 역할로 바뀌면서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극중 거친 입담을 보여야 하는 캐릭터를 소화하는 유이는 “‘호구의 사랑’에서 처음으로 거친 욕, 거친 말, 사투리까지 하게 됐다”며 “극중 전라도 사투리 연습을 하다 보니 평소 말투도 비슷하게 따라가더라. 현실에 돌아왔을 때도 말을 거침없이 해서 호구 역의 최우식에게 좀 상처를 준 것 같다”며 “극중 역할과 현실 사이에서 헛갈리고 있다”고 해 현장에 웃음을 안겼다.



‘호구의 사랑’은 연애기술 제로의 모태솔로 강호구가 자신의 첫사랑이자 국가대표 수영여신인 도도희와 재회 후 복잡한 애정 관계, 위험한 우정에 휘말리게 된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로맨스 청춘물이다. ‘열리 있는 사랑’ 후속으로 2월 9일 첫 방송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온라인 **와글와글** 10% 웃도는 청년실업률...“열정페이? 웃기는 소리죠”

○...지난해 서울 청년실업률이 통계 이래 처음으로 10%대를 기록,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슬픈 우리의 자화상”, “우리 도대체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는 거냐”, “살다살다 이렇게 피부보와 망을 정도로 힘들게 하는 정부는 처음 겪는다”, “난 30대 남자, 앞으로 결혼 안 하고 초식남으로 살 거다. 지금 결혼과 출산은 자살행위다”, “졸업유예, 장기휴학, 알바 이런 거 다 감안하면 실업률 10% 훨씬 넘는다. 취준생이란 이름으로 유예만 몇 년째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성세대들이 어찌 당신들이 만든 구조다. 누가 이렇게 눈을 높였나? 머리 안 좋아도 자기 자식만큼은 대학 보내려고 안달. 결국 대학생이 발에 차게 만들었지. 중소기업 생산직

인원 부족하다? 자기 자식은 그런 데 가는 거 싫어하면서 그런 일을 남에게 하라니”, “임금은 착취, 세금은 수탈, 일자리는 노예, 정치는 부패, 부동산은 거품, 복지는 생색 수준. 국민안전은 재앙”, “이런 상황에 열정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산부인과와 소독용 고압 멸균기로 계란을 삶은 사진을 SNS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일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글쓴이는 이를 장난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들이 그동안 수술실에서 계란을 삶아 먹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도대체 머리에 무슨 생각이 있으면 수술도구로 계란을 삶아 먹을 생각을 해?”, “개념 없는 이런 사람들 때



문에 모든 조무사가 무시당하죠”, “일부 간호조무사들의 비상식적 행동이 간호사까지 욕 먹게 한다”, “조무사들이 간호사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이런 행동들 때문”, “보육 교사,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하고 대신 국가직 시험으로 전환해라. 아무한테나 자격증 주고 이런 무개념 행동 좀 안 하게”, “그 계란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가요?”라고 비판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 1 크림빵 뽕소니 자수 “사람 아닌 조형물·마루인 줄 알았다”
- 2 격화하는 글로벌 환율전쟁... 다음 타자는 한국?
- 3 “위기의 삼성전자, 결국 블랙베리 인수할 것이다”
- 4 LG家 3세 구분호, 효성家 조현준 사장과 IT사업 추진
- 5 ‘공공기관 해체’ 거래소... 다음 수순은 ‘IPO’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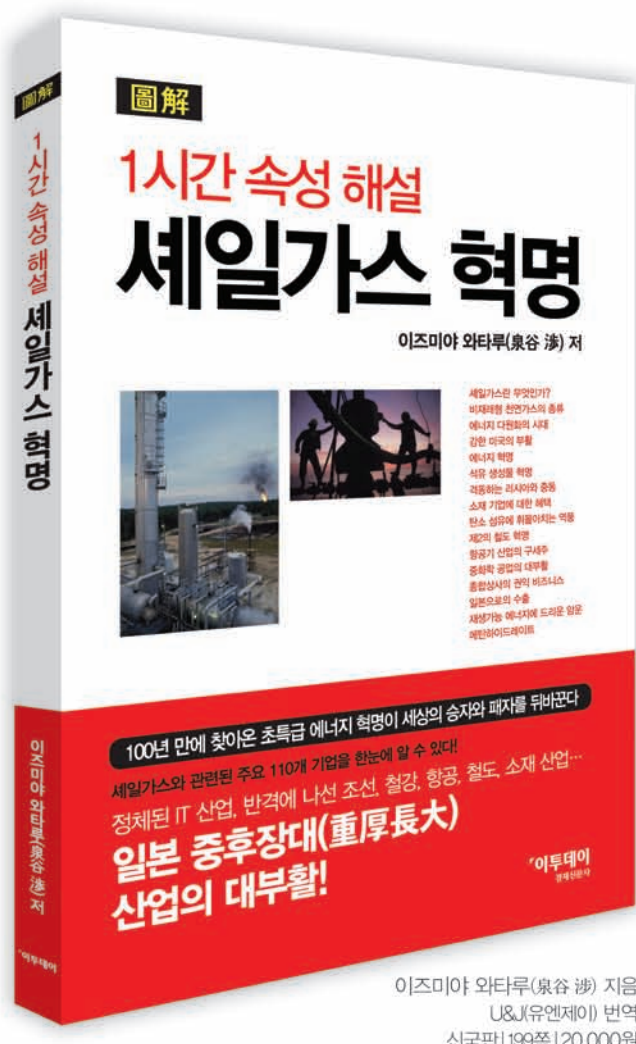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예측
- 중동의 발원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요(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J(유엔제이) 번역
신국판 | 199쪽 | 20,000원

이필상 칼럼



서울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

영화 ‘국제시장’이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샀다. 한국전쟁 때 흥남 부두에서 맨몸뚱이로 미군함정에 실려와 독일탄광 광부,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 등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주인공 덕수를 보며 같은 세대를 산 사람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온갖 역사의 질곡을 뚫소 겪으며 가난을 물리치고 고도 경제성장을 일구어내는 국제시장 세대의 모습에서 다음세대 사람들도 숙연한 고마움을 느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에게 가난의 역사는 끝난 것인가? 안타깝게도 덕수의 아픔은 끝나지 않았다. 덕수가 상징하는 노년세대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나이가 들어 살길이 막막하다. 무엇보다도 손자, 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아들과 딸들이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언제 직장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신세대 가슴이 메어진다.

최근 우리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빈곤화의 3가지 재앙을 겪고 있다. 출산율이 OECD국가 중 꼴찌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합계 출산율이 1.19밖에 안 된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이다. 1970년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가 4배나 늘어 일본의 3.6배보다 높다. 문제는 경제가 고용창출 능력을 잃어

덕수의 또 다른 아픔

실업자를 양산하는 것이다. 청년층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야 하는데 거의 절반이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맨다. 노년층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 직장을 떠나야 한다. 이에 따라 저출산과 고령화가 악순환을 형성하고 동시에 모든 세대가 다시 가난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 실제로 청년층은 삶 자체가 불안하여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아예 자신들의 사회 생태계가 파괴되었다고 신세를 한탄한다. 취업→결혼→출산의 고리가 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년층은 나이가 들수록 사는 것이 두렵다. 일자리가 있으면 돈을 벌어서 살 수 있지만 이미 대부분 직장을 잃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으로 사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매달 받는 돈이 푼돈이고 기금이 언제 고갈될지 모른다. 자녀에게 의지하고 살 수도 있으나 이것도 옛날 이야기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저출산을 막기 위해 선진국들은 과감한 정책을 펴고 있다. 스웨덴은 여성의 출산휴가가 480일이나 된다. 아이가 아프면 간병휴가도 120일을 준다. 휴가기간 중 평균 소득의 80%를 보장한다. 출산과 육아의 양성 평등을 강조하여 남편도 의무적으로 출산휴가를 가져야 한다. 프랑스는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라고 선언하고 출산, 양육, 교육의 모든 과정을 정부가 책임지는 정책을 펴고 있다. 90% 이상의 아이들이 공립유치원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정도이다.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독일이 앞서간다. 경제정책을 고령화에 맞추어 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연금수급 연령을 63세에서 69세까지 늦

추어 근로 연령을 연장하고 평생교육을 강화하여 노년층의 업무 능력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고령자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하고 공장 리모델링을 하며 의료진까지 갖추고 있다. 고령화를 고용화로 해결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기르고 안정적인 사회 발전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문제가 많다. 출산 장려를 위해 매년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다. 여기에 어린이 집에서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령화 대책도 극히 피상적이다. 하드웨어로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급급하고 하위 소득계층에 생색내기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심각한 사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 결혼회파와 출산파업 상태부터 막아야 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의 정규직화와 유급휴가의 확대를 통해 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 교육의 국가책임제를 확립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낳게 해야 한다. 고령자들에게도 제대로 된 일자리와 복지정책을 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기업들은 단기적인 수익성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존 능력을 기르는 차원에서 정부 정책에 호응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따뜻한 가족문화를 복원하고 결혼을 앞당기는 노력도 절실하다.

⑨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자본시장부 차장

선생님 떠난 교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6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동안 거래소는 조직과 인력운영, 예산안까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았는데요. 임원 선임은 물론 각 부서조직, 운영방안 심지어 조직의 규모까지 정부의 통제 아래 있었습

니다. 앞으로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었던 만큼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내세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본시장법을 주축으로 금융위원회 통제를 받게 됐습니다.

조직 관리와 임원, 직급별 정원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자유롭게 정하게 됩니다. 살림도 개선되고 수익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사업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까지 내놔

했습니다. 거래소측은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중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내놔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위에 뚜렷한 자신감도 엿보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지금 거래소 분위기는 사뭇 고무돼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해지에 맞춰 그동안 울타리에 갇혀 추진하지 못했던 다양한 계획을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업계, 그리고 거래소를 통제했던 기재부의 시선은 이들과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들은 앞으로의 거래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들이 걱정하는 분위기는 한마디로 ‘선생님 떠난 교실’이 될까 하는 우려입니다.

그동안 거래소는 공공기관 해제를 숙원사업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때마다 거래소의 발목을 잡았던 여러 가지 이

유가 있었는데요. 먼저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독점적 지위를 지녔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으

로 방만경영이 이어졌다는 게 원인이었습니다.

300여개 공공기관 가운데 복리후생비만 연간 1300여만원을 쓰는 곳은 거래소가 유일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따가운 시선이 이어졌고 거래소 스스로도 이를 문제점으로 인식했습

니다. 결국 뼈아픈 자구책을 마련했고 이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방만경영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을 내놔고,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더해왔습니다. 마침내 지난해에서는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벗어나기도 했지요.

그동안 시뮬라틱 떠돌아다녔던 교실은 선생님이 들어오면서 조용하고 착한 교실로 변했습니다. 교사가 머물러 있는 동안 학생들은 숨죽이며 지식을 닦았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숨죽이며 선생님이 교실을 떠나기만을 기다렸습

니다. 교사는 조용해진 학생들에게 안심하며 마침내 자율학습권을 쥘했습니다. 그리고 교실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궁금합니

다. 앞으로 이 교실이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변할지 꼼꼼하게 지켜볼 예정

입니다.

junior@

이 상 인 미래원격평생교육원 부원장

보육교사도 워킹맘도 행복한 사회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으로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는 '미래원격평생교육원'이 있다. 내가 일년 삼백육십오일 중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 회사 이름이다.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 보육교사자격증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이상인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라도 자랑스럽게 나 자신을 소개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떠오른 뉴스 동영상 화면을 클릭하는 순간, 화면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인천 아동학대 보육교사가 취학한 자격증 과정, 물론 그 교사가 우리 교육원에서 공부한 학습자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유사 교육기관의 종사자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마음이 불편했다. 더불어 나 역시 어린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해야 하는 싱글맘이었으나...

워킹맘이자 싱글맘으로 살아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자녀 양육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오래 전 일이라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그 당시 딸의 얼굴이 그리 밝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그렇지만 왜일까라고 생각해 볼 여유도,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을 한번 살펴볼 겨를도 없었던 것 같다. 그저 맡아줄 사람이 없으니 선택이 없었던 것이다.

단지 지금이 순간도 그때 딸아이를 담당했던 보육교사가 친절하고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사람이었기를, 더불어 교육적으로 투철한 마인드를 가진 인자한 사람이었음을 겨러 간절히 믿고 싶다. 그대야만 조금이나마 힘없고 약한 어린이였었던 나의 딸에게 별 미안하고 무심했던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다른 모든 보육교사들이 뉴스에 나온 무책임한 그 교사처럼 행동하지 않듯이 학점은행제 원격교육을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딴 교사들이 모두 자격 미달인 것처럼 대우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지금도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시간을 쪼개어 가며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학습하는 미래의 보육교사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모든 아이들과 그들을 보살피는 보육교사들, 나아가 워킹맘까지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되길 빌어본다.

김 미 영 정치경제부/

與도 고백한 ‘증세 없는 복지’ 허구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29일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과동, 문제와 해법’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 문창용 제세실장은 토론회문을 통해 ‘경기 회복 저해 가능성’을 들어 인상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탈세를 줄이고 비과세·감면을 해보자는 ‘박근혜 증세’가 한계에 달했다”면서 “복지지원 마련을 위해 어떻게 증세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중산 서민층 중심으로 복지를 강화하는 ‘중복지’를 위해 법인세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간 정부와 입을 맞춰 ‘법인세 인상 절대 불가’를 외쳤던 새누리당에서 늦게나마 솔직한 고백이 나온 점을 주목한다.

그간 박근혜 정부가 내건 ‘증세 없는 복지’는 ‘증세, 없는 복지, 복지 없는 증

세’ 등으로 바뀌어 불리며 그 현실성을 비판받아왔다.

3년 연속 10조원 안팎의 대규모 세수 평가가 난 상황에서, 이제는 여당도 그간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재벌감세 철회 및 법인세 인상’을 정쟁 시비로만 폄하하고 일축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음을 인정한 셈이다.

다만 이러한 여당 내부 기류 변화는, 다음 달 2일 임시국회 개회일에 열리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다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승민·원유철 의원 조가 당선될 경우엔 증세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반면, ‘박근혜 정부의 치어리더’를 자처하고 나선 이주영·홍문준 의원 조가 당선될 경우엔 증세 논의에 힘을 쏟을 우려가 있다.

중부담, 중복지라는 지향과 이를 위한 증세 필요성을 인정하고, 새누리당이 임시회부터 증세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줄길 기대한다.

bomnal@

아픈 몸은 깨달음을 위한 좋은 도구
아프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아픔과 함께 잘 살아가는 법’ 영성 분야 최고 권위의 노틸러 북 어워드 수상작

인생의 정점에서 갑자기 불차방에 걸려 쓰러진 법대 교수의 감동작인 실화. 그녀는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상실은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 되었다. 영혼에 대해 용기 있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는 똑같은 평정심을 가지고 인생의 춤과 함께 진정으로 '존재하는' 법에 대한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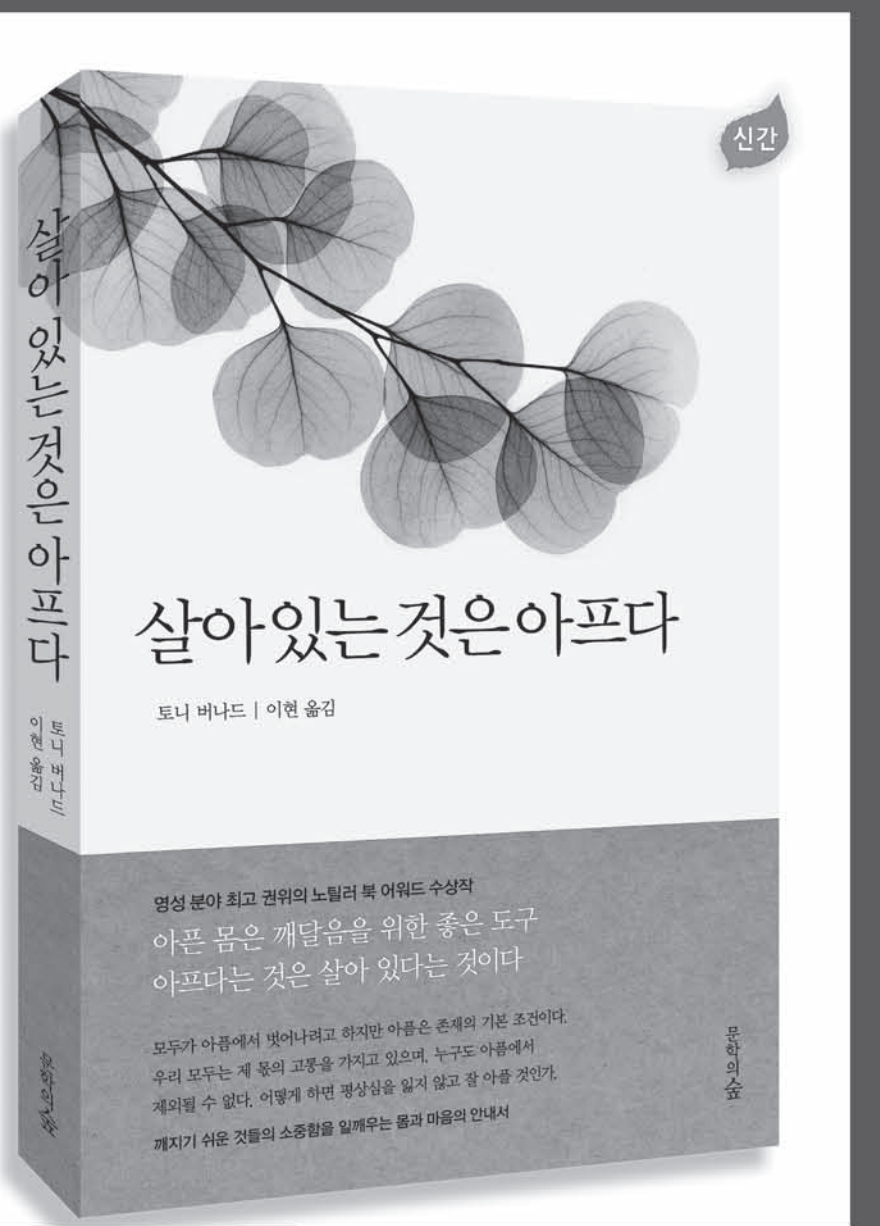
깨지기 쉬운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몸과 마음의 안내서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 버나드 | 이현 옮김 | 236쪽 | 13,500원

문학의숲

당신을 위한 출판책
TEL. 021325-5676



도자기의 여왕 HD 한국도자기

설날 선물세트

기억되는 최고의 선물, 프라우나



Prouna	체인 머그 1인용	172,000원 ▶ 154,800원
	다이아나 커피 1인용 2pcs	277,000원 ▶ 249,300원
	마이컬렉션 머그 1인용	79,000원 ▶ 71,100원

3~4만원대 실속 제안



엘리제핑크/퍼플 머그 2pcs
42,000원 ▶ 33,600원

에비뉴얼 커피 2인용 4pcs
53,000원 ▶ 42,400원



초충도 접시세트 4pcs
43,000원 ▶ 34,400원



스위트홈 벽걸이시계
61,000원 ▶ 48,800원

5~10만원대 행복 제안



빈티지폴라쥬 머그 4pcs
70,000원 ▶ 56,000원



LIHAN 한국도자기리빙
멀티타진 네이비/오렌지 각 1(3)pc
130,000원 ▶ 104,000원



국화문 떡국기 4pcs
127,000원 ▶ 101,600원



궁 단반상기 2인용 6pcs
166,000원 ▶ 132,800원

15만원이상 품격 제안



이왈중 제주생활의 중도 사각그림접시
211,000원 ▶ 168,800원



아르망 구절판 9pcs
343,000원 ▶ 308,700원



실버리본 브런치세트 10pcs
314,000원 ▶ 251,200원

“세계적 디자이너 멘디니를 만나다”

Geometrica
Alessandro Mendini

A. Mendini
Prouna



지오메트리카 FULL SET 13pcs
517,000원 ▶ 465,300원

에스프레소 2인용 4pcs
100,000원 ▶ 90,000원

커피 2인용 4pcs
132,000원 ▶ 118,800원

주전자 1(2)pc
158,000원 ▶ 142,200원

우유기+설탕기 2(3)pcs
127,000원 ▶ 114,300원



2014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1위 수상

도자기 홈세트 부문

한국도자기 본차이나는 미국, 영국 등 세계 80여개국에 수출하는 세계적 명품입니다 Bone Ash (정제된 소뿔가루)가 약 50%(세계 최고 수준) 포함되어 있어 가볍고 단단하고 보온성이 뛰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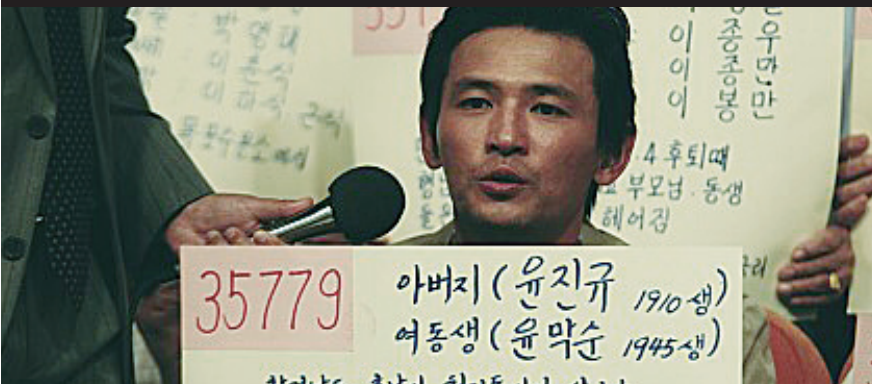
구입처 서울 롯데호텔지하1층 02-773-0037 / 연희점 02-338-2631 / 마포점 02-332-3722 / 청계8가점 02-2231-9500 / 종로점 02-2279-1800 / 논현점 02-540-6700 / 삼성교점 02-926-7007 / 영등포점 02-2636-9031 / 송파점 02-421-8191 / 청량리점 02-2296-2589
서초점 02-587-7757 / 대방점 02-825-3011 **인천/경인** 인천점 032-421-0038 / 분당점 031-714-3300 / 하남점 031-796-1155 / 수지점 031-272-9900 / 광명점 02-2625-0002 / 안양점 031-423-0078 / 평택점 031-658-4747 / 수원점 031-898-5885
파주점 031-941-2631 / 안산점 031-410-1804 / 기흥하나로마트점 031-376-4208 **강원** 원주점 033-764-8893 / 강릉성남점 033-643-3811 / 강릉포남점 033-646-3811 **충북** 공장이울렛 043-272-7074 / 수안보파크호텔점 043-846-2331 / 충주점 043-845-5211 / 오창점 043-241-5500
청주분평점 043-288-3777 **대전/충남** 대전서구점 042-536-9916 / 대전동구점 042-221-8816 / 대전둔산점 042-488-1369 / 천안점 041-577-4911 / 서산점 041-665-4316 / 당진점 041-353-4316 / 공주점 041-858-5251 **대구/경북** 대구점 053-253-1940 / 구미점 054-442-8875
포항점 054-273-9504 / 안동점 054-852-5480 **부산** 부평점 051-245-8370 / 화명점 051-333-0008 / 양정점 051-864-0399 **울산/경남** 울산점 052-266-6534 / 울산남구점 052-256-2254 / 마산점 055-264-0650 / 김해점 055-333-9162
진주점 055-755-1393 / 합천점 055-932-0011 **전북** 전주점 063-285-6868 / 익산점 063-855-8130 **광주/전남** 순천점 061-722-7600 / 광주북구점 062-526-5555 / 광주상무점 062-374-5251 **제주** 이도점 064-752-1405 / 삼도점 064-756-2350 / 제주이마트점(4층) 064-723-7272

백화점 롯데 / 신세계 / AK플라자 / 갤러리아 / 대구백화점 / 세이백화점 / 바우하우스 프리미엄아울렛 / 디큐브시티 / 안산뉴코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판부** 02-2250-3300

HD 한국도자기
www.hankook.com

1000만 관객 사로잡은 영화에는 있다

1 소통



국제시장

남녀노소 누구나... 세대 관통하는 공감 소재

2 작품성



태극기 휘날리며

탄탄한 스토리·큰 스케일... 볼 맛 나는 영화

3 메시지



변호인

이순신 리더십·변호인 정의... 시대적 요구 대변

어느새 14편이나 탄생했다. 꿈의 흥행 기준 1000만 관객이 든 영화 편수다. 2004년 2월, '실미도'(1108만 1000명)가 처음 1000만 관객을 넘을 때만 해도 '1000만'은 꿈의 숫자였다. 이후 2004년 '태극기 휘날리며'(1175만 6735명), 2006년 '왕의 남자'(1230만 2831명), 2006년 '괴물'(1301만 9740명) 등 매해 1000만 영화가 배출됐고, 2012년에는 '도둑들'(1298만 3341명)과 '광해, 왕이 된 남자'(1232만 3408명) 등 두 편의 1000만 영화가 탄생하며 점차 대중성을 띠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명량'이 1761만 3702명이라는 신기록을 세우며 2000만 관객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1월 현재 한국 영화는 이들 작품에 더해 '해운대'(1132만 4433명), '7번방의 선물'(1281만 1213명), '변호인'(1137만 5954명), '국제시장'(1149만 2427명, 23일 기준) 등 총 11개의 1000만 영화를 배출했다. 여기에 외화 '아바타'(1330만 2637명)와 '겨울왕국'(1029만 5483명), '인터스텔라'(1024만 433명)를 포함하면 총 14개 작품이 국내 박스오피스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셈이다.

1000만 영화 돌파의 조건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첫 번째 요소로 전 세대의 관객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소통'을 꼽고 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이제는 1000만 영화의 등장이 놀랍지 않은 시대이지만 외화

까지 불과 14편에 불과하다. 영화 인구를 고려할 때 1000만 관객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세대를 관통하는 공감 소재의 존재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올해 첫 1000만 영화로 등극한 '국제시장'의 경우 이와 같은 논리를 입증한 사례다. 한국 근현대사를 다룬 '국제시장'은 40~60대 관객에게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아버지 세대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심어주며 공감대를 자아냈다.

두 번째 요소는 스케일과 재미를 바탕으로 한 '작품성'이다. 영화는 드라마, 예능 등 다른 분야와 달리 직접적인 소비가 동반된 문화 활동이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시간과 돈

을 투자할 수 있는 가치의 형성이다. 그 가치는 작품의 질적 영향력과 재미에 있다. '해운대', '태극기 휘날리며', '괴물' 등은 모두 거액의 제작비와 인력이 투입된 영화이며 '아바타', '인터스텔라' 등 외화의 성공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김상호 영화평론가는 "할리우드 영화 중 블록버스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돈이 아깝지 않은 스케일에 있다. 대부분의 1000만 한국 영화들 역시 탄탄한 스토리와 큰 스케일을 담보로 한다. 재미가 있어야 관객이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 번째 요소는 '메시지'다. 1700만명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명량'은 사회적 메시지를 통해

관객과 소통에 성공했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심각한 후유증에 빠져 있던 국민들에게 전란을 극복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제공하며 전 세대를 사로잡았다는 평이다.

'명량'을 배급한 CJ엔터테인먼트 한응수 과장은 "'명량'의 성공은 영화적 구성과 스케일, 스토리 전개보다 임진왜란의 어려움 속에서 국난을 극복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한 갈구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을 모티브로 한 '변호인' 역시 '상식'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최두선 기자 sun@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오니...

몸 속가득
활력충전! **베콤씨**

근육과 세포의 피로물질을 배출하는 비타민 B, C에 항산화제인 비타민E와 셀레늄까지 채운 베콤씨!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 베콤씨로 꼭 채우세요.

VITAMIN B ▶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구내염, 눈의 피로, 어깨결림, 피부병 예방 **VITAMIN C ▶** 피로회복, 기미·주근깨 완화, 잇몸출혈, 비출혈 예방

■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80-024-1188(수신자 요금부담)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1000만 관객 2관왕 **윤제균** 감독

소시민의 웃음과 눈물
영화 흥행의 힘이죠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해운대’가 1000만을 넘었을 때는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 컸는데, 지금은 많은 관객 여러분이 저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알아주시는 것 같아 감사하다. 관객 여러분께 그저 고마운 마음뿐.”

영화 사상 최초 두 편의 1000만 영화감독이 된 윤제균 감독은 감격스런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윤제균 감독은 ‘국제시장’의 1000만 돌파로 2009년 ‘해운대’에 이어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두 편의 1000만 영화를 탄생시킨 감독이 됐다.

‘국제시장’은 올해 첫 1000만 영화라는 사실로 의미를 갖는다. 3년 연속 1억 관객을 돌파한 한국 영화계에 있어 연초 흥행 계보의 물꼬를 댔다는 점에서 영화계는 환영했다. 5년 만에 메가폰을 잡은 윤제균 감독은 “‘국제시장’은 남다른 작품이다. 개인적인 사연에서 출발했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다. 살아계실 때 고맙다는 말을 못해 한이 되었다. 나이 들어 내가 아버지가 되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다. 다른 영화와 달리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시장’의 1000만 달성 분석도 ‘세대간 소통’에 기인한다. 젊은 관객층에게는 이전 세대의 치열한 삶을

보여주며 무뎠던 아버지의 고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했으며 4050 세대에게는 지난 추억의 향수를 돌아보며 잃어버린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윤제균 감독은 “한국 현대사가 이렇게 파란만장할지 몰랐다. 영화를 만들면서도 느꼈지만, 우리나라 현대사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그 안에 감독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명확했다. 사람 냄새 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1000만 흥행 감독이나 인간적인 감독이나”라는 질문에 윤제균 감독은 “1000만은 하늘이 준 선물일 뿐이다. 1000만 감독이 됐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운이 좋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지만 난 서민적인 감독이다. 소시민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제균 감독은 또 “흥행은 아무도 모른다. 제 신조가 ‘관객은 신이다’라는 것이다.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봤지만 관객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관객의 평가는 정말 냉정하다. 영화를 제작할 때마다 두렵다”고 덧붙였다.

글/최두선·사진/최유진 기자 sun@

얼마나 벌었나

명량

누적 매출액 1357억원 최고

7번방의 선물

914억... 제작비 26배 ‘대박’



최민식·송강호 등 숨소리조차 전율 ‘연기 교과서’

흥행 보증수표 배우는 누구

1000만 관객을 이끈 한국 영화 속 주조연 배우들의 존재감이 눈에 띈다. 2004년 설경구, 안성기, 허준호, 정재영 등이 출연한 영화 ‘실미도’가 첫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후 10여년이 흐른 지금 각양각색의 매력과 연기 스펙트럼으로 무장한 경쟁한 배우들이 1000만 관객몰이에 성공했다. 최민식, 송강호, 황정민 등 굵직한 필모그래피의 연기파 배우들은 물론, 임시완, 박신혜 등 젊은 스타에 이르기까지 탄탄한 캐리커 소확력으로 스크린 관객에 높은 지지를 얻은 배우들이 그 대표적 예다.

1970년대 산업화 시기 우리네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국제시장’이 최근 개봉 이후 각계각층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주연배우 황정민이 1000만 배우에 등극했다. 데뷔 25년 만이다. 영화 ‘너는 내 운명’을 통해 절절한 멜로 연기로 제43회 대중상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 ‘밥상 소감’으로도 유명세를 떨친 그다. 향토적이면서도 특유의 가슴 따뜻한 힘이 살아있는 황정민의 연기 톤은 관객으로부터 남다른 신뢰를 쌓았다.

충무공 이순신으로 목격하게 분한 최민식은 영화 ‘명량’을 통해 1761만 관객을 동원, 역대 누적 관객 수 1위를 이끌었다. ‘올드보이’ ‘쉬리’ 등 파격적 변신을 감행해 온 최민식은 강렬한 캐릭터 소확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충무로 대표 연기와 배우로 평가받는다.

송강호의 경우 ‘괴물’ ‘변호인’으로 1000만 관객 동원에 2번 성공했다. ‘남버3’부터 ‘살인의 추억’ ‘박쥐’

황정민, 데뷔 25년만에 등극
류승룡 개성있는 연기로 주목
임시완·박신혜 차세대 스타로

“여배우 존재감은 상대적 미미
남자 원톱주연 티켓파워 과시”

‘밀양’ 등 무수한 작품에서 송강호는 그야말로 작품과 캐릭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공감대를 형성해 내는 파급력을 지녔다. 아울러 ‘변호인’의 임시완, ‘7번방의 선물’의 박신혜 등 차세대 스타도 1000만 관

객 동원 작품에 주조연급 연기자로 활약하며 재조명 받는 기회를 누렸다. 앞서 호감 가는 비주얼과 매력을 겸비한 장동건과 원빈 역시 2004년 당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태극기 휘날리며’를 통해 배우로서 한 단계 성장했다.

이 가운데 류승룡과 이준기는 특징적 행보를 드러낸다. 오랜 무명 기간을 거친 류승룡은 이제 개성 있는 연기파로 우뚝 섰다. ‘명량’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조연, ‘7번방의 선물’에서 주연을 맡아 세 번의 1000만 영화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그다. 반면 이준기의 경우 ‘왕의 남자’를 통해 여장남자 공길 역을 맡아 데뷔 1년 만에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편 1000만 관객 동원 작품의 조연으로는 오달수가 압도적이다. 영화 ‘괴물’ ‘7번방의 선물’ ‘변호인’ ‘도둑들’ 등 1000만 관객 동원 영화에 출연한 오달수는 코믹하면서도 개성 있는 감조로서 활약해 흥행에 큰

역할을 했다. 이와 비교해 오달수와 버금가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유해진의 경우 ‘왕의 남자’를 제외하고는 남다른 존재감에 비해 1000만 관객 동원 작품을 이르지 못했다.

이처럼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국내 영화에서는 남자 배우들이 막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여자 배우들의 존재감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이제 남자 원톱 주연이 티켓 파워가 있다. 반면 ‘해운대’(하지원, 엄정화), ‘도둑들’(김해수, 전지현, 김해수) 등의 경우 등장인물이 워낙 많았기에 여자 배우만의 두드러진 활약을 꼽기 어렵다. 그만큼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캐릭터를 떠올렸을 때 어울리는 배우가 한 명밖에 없다는 건 좋지 않은 일이다. 몇몇 배우들에 의존하는 건 영화계의 저변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1000만 영화 단골배우 오달수

50여편 출연 감초 연기
누적 관객수 1억입니다

배우 오달수의 연기 인생은 1990년 극단 ‘연화단거리패’에 입단하며 시작했다. 1000만 영화 ‘국제시장’까지 총 5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오달수의 가치는 출연작 누적 관객 수 1억명이라는 숫자가 말해준다. 누구보다 꾸준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는 증거다. 오달수는 “관객에 감사드리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라기보다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다”고 소감을 남겼다.

오달수의 필모그래피는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괴물’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도둑들’ ‘7번방의 선물’ ‘변호인’ ‘해적: 바다로 간 산적’ ‘국제시장’ 등으로 대변된다. 총 11편의 1000만 영화 중 무려 네 편에 출연했다. 누적 1억 관객 돌파 기록은 꾸준한 작품 활동, 탄탄한 연기력, 관객들의 전폭적 지지 등 삼박자가 고루 갖춰지지 않으면 달성하기 힘든 기록으로 평가된다.

오달수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 관객이 찾아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하지만 1000만, 1억 등의 수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연기할

뿐, 흥행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오달수는 “관객 수보다도 관객 여러분이 보여주신 사랑이 더 뜻 깊고 소중하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국영화를 많이 사랑해 달라”고 덧붙였다.

오달수는 또 “오달수가 나오면 흥행한다는 흥행 공식이 있다더라. 그런 공식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 누적 관객 수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많은 작품의 연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숫자들이다. 시나리오를 보고 처음 받았던 감동, 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관객 분들에게 전달된 것 같다”고 말하며 “나를 캐스팅해준 감독들에 고맙다”고 밝혔다.

오달수는 올해에도 2월 개봉하는 ‘조선명탐정: 사라진 놈의 딸’을 시작으로 ‘베터’ 등 다수의 작품으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오달수는 “올 한해도 많은 바 최선을 다하면 관객들이 사랑해주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두선 기자 sun@

할리우드 최고 흥행작은

‘아바타’ 수익 8249억 1위… ‘타이타닉’ 2위

한국에 1000만 영화가 있다면 할리우드에는 흥행수익 4억 달러(약 4339억원)를 넘어서는 영화가 있다. 북미 박스오피스 전문사이트인 박스오피스모조에 따르면 2015년 1월 기준 4억 달러를 넘어선 영화는 총 19편이다.

역대 흥행 수익 1위를 기록한 영화 ‘아바타’와 2위 ‘타이타닉’은 모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다. 1997년 역대 박스오피스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흥행 수익 6억 5867만 달러(약 7145억원)를 돌파하며 1위를 지켜온 ‘타이타닉’은 2009년 북미 흥행 수익 7억6050만 달러(약 8249억원)를 돌파한 ‘아바타’에 왕좌를 빼앗겼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더불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다크나이트’ 시리즈로 북미 흥행 수익 순위 4위와 7위에 작품을 올렸고, 조지 루카스 감독은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로 각각 6위와 5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영화 ‘ET’와 ‘쥘리카공원’을 각각 9위와 17위 순위에 안착시켰다.

스튜디오별로 살펴보면 디즈니 계열의 브네나 비스타가 6편으로 가장 많은 작품을 순위에 올렸다. 이어 폭스사 3편, 워너 브라더스·유니버설·라이온게이트가



각각 2편, 파라마운트·드림웍스·소니·파라마운트와 드림웍스 합작이 각각 1편씩 순위를 차지했다.

장르는 SF와 액션 판타지 영화가 약 7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약 25%는 애니메이션 영화였다. 멜로 영화는 단 한 작품뿐이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부터 SF와 더불어 ‘스파이더맨’ ‘다크나이트’ ‘어벤저스’ ‘아이언맨’과 같은 마블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 영화가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노란우산공제

“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노랑우산
노란우산공제

압류금지에 소득공제도 되고,
복리이자에 목돈마련 저축까지!
사장님들, 노란우산 챙기세요~

홍보대사 이보영

▶노란우산공제는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시 혜택

- 납입부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연 300만원 소득공제로 최고 125만원까지 절세가 됩니다.
-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부도 등 사업 실패 시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가입 후 2년간)

▶가입안내

- 가입자격: 모든 소기업 소상공인
- 납입부금: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 구비서류: 청약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가입문의 1666-9988 / www.8899.or.kr

※KB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체국,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대구·부산·광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매입·노령·노령·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경영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창업촉진법 제 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저축보통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⑫ 배우 황정민

“나에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항상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겉으로 표현하지 못 했는데 하나씩 제일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나를 소개합니다. 60여명의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나는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스포트라이트 받아 죄송합니다. 트로피의 여자 발가락 몇 개만 떼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05년 청룡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황정민의 감동적인 수상소감이다.

“배우는 연기로 관객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연기에 늘 고민해야 하고 공부해야 한다. 진심이 없으면 연기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울고 웃고 즐거워할 때 표정들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슴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관객들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안다.” 황정민이 인터뷰에서 연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받고 한 대답이다.

‘필름의 벽’ 뛰어넘은 소통... 그 연기, 진심이다

두 마디의 말은 지난 1월6일 화제와 논란 속에 꿈의 흥행숫자인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국제시장’ 주연 황정민의 탄탄한 성공의 원동력을 알려주는 단초다. 배우로서의 승패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연기력이다. 스크린 너머의 관객을, TV 화면 너머의 시청자를 연기 하나로 몰입하게 하고 감동의 파문을 일으키는 연기력을 갖추야 배우로서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물론 마케팅과 이미지의 힘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스타가 될 수 있지만 연기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언제든 스타는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다. 황정민은 사극에서부터 액션, 멜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능수능란하게 소화하는 몇 안되는 배우다. 또한 부패 형사에서부터 순진한 시골 총각까지 캐릭터의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연기자로 평가받는다.

능수능란한 팔색조 연기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다양한 인생을 표출하는 연기가 무작정 좋아 연기자의 길에 들어섰다. 대학 재수 때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 신공모에 합격해 우미관 지배인 역으로 데뷔해 연기자로서 대중과 처음 만났다. 연극과 뮤지컬을 오가며 관객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특히 뮤지컬 ‘지하철 1호선’(1994년)은 황정민에게 대중적 존재감을 부여했을 뿐

다양한 인생 표현
연기가 좋아
무작정 충무로 ‘노크’

‘장군의 아들’로
스크린 데뷔
연극·뮤지컬 오가며
착실하게 쌓은 내공

‘국제시장’으로
1000만 배우 등극

자신을 죽이고
작품을 살리는
희생과 노력의 결과

만 아니라 연기자로서의 기본과 자세를 일깨워준 작품이다.

연극과 뮤지컬을 떠나 2000년대 접어들면서 영화에 전념했다. 오디션에 적극적으로 응하며 다양한 영화에 출연했다. ‘와이키키 브라더스’(2001) ‘로드무비’(2002) ‘바람난 가족’(2003) ‘마지막 늑대’(2004) ‘너는 내 운명’(2005) ‘사생결단’(2006) ‘검은집’(2007) ‘슈퍼맨이었던 사나이’(2008) ‘오감도’(2009) ‘부당거래’(2010) ‘평양성’(2011) ‘댄싱퀸’(2012) ‘전설의 주먹’(2013) ‘국제시장’(2014) 등 2000년대 들어 매년 1~4편의 성격과 장르가 다른 영화에 출연하며 캐릭터와 연기력의 스펙트럼을 확장시켜나갔다. 그러면서 안성기 최민식·송강호 설경구 뒤를 잇는 연기와 배우 대열에 합류했다.

수많은 관객, 기자와 영화평론가, 그리고 감독과 연출가들이 ‘황정민-연기와 배우’라는 등식을 인정한다. 빼어난 연기력 때문일 것이다. 2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연기에 황정민의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제시장’에서도 쉽게 이 등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70대라고 판단했다. 극중 주인공 덕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70대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70대의 행동들이 과거의 이야기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한다면

20, 40대의 이야기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생각했다. 노인 흉내를 내는 것은 캐릭터의 진정성을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 내면의 것들을 먼저 정리하고 행동이나 걸음걸이 말투 어조를 고민 했다. 노인분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관찰을 많이 했다. 동영상을 찍어 연구도 많이 했다.”

이 말만 들어도 황정민이 배우로서 성공한 결정적인 원동력이 연기력이고 그 연기력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연기는 진심과 가슴에서 나와야 하고 관객과 연기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를 해야 한다는 황정민의 말을 들으면서 영화 학자 리 볼커가 ‘위대한 배우는 캐릭터의 내적 확신(진심)과 지식을 셀룰로이드(필름) 장벽을 가로질러 관객 각자의 의식 속으로 직접 도달하게 하는 배우다’라고 적시한 것을 황정민이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황정민이 배우로서 성공의 원동력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영화, 드라마, 뮤지컬, 연극 등 그가 관객과 시청자를 만나는 작업들은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이 함께 협업을 해야만 한다. 주연만 잘한다고, 감독만 잘한다고, 작가만 잘한다고 성공할 수 없다. 감독의 연출, 작가의 시나리오, 배우의 연기,

그리고 스태프의 뒷받침이 어우러져야 완성도 높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수많은 사람이 작업에 참여하는 영화나 드라마, 뮤지컬에서 스타나 주연 연기자들이 문제를 일으켜 망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황정민은 “스태프들이 차려 놓은 밥상을 먹기만 했다”는 겸손한 수상소감에서 알 수 있듯 현장에서 동료 연기자 등과 협업을 가장 잘하는 배우 중 한 사람이다. 자신을 죽이고 작품을 살리는 태도가 황정민의 배우로서 성공을 가져다준 중요한 비결이다. 윤제균 감독은 “‘국제시장’의 성공은 황정민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으면 힘들었을 것이다”고 말할 정도다.

“‘국제시장’의 1000만 관객 돌파는 너무 기쁘지만 이것이 다음 작품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연기는 스포츠 경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 작품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고 말하는 황정민은 2015년 올 한해만도 ‘곡성’ ‘베테랑’ ‘히말라야’ ‘검사와 전두환’ 4편의 영화를 통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배우로서 가장 바람직하게 작품을 통해 끊임없이 관객과 소통하며 굳건한 성공시대를 다지고 있는 황정민의 배우로서의 꿈은 무엇일까. “60대 때 멜로를 찍고 싶다. 멜로를 하기 위해서는 책 니콜스처럼 잘 읽고 싶다.”

배국남 기자 knbae@



HERNO

이탈리아 프리미엄 패딩, 에르노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무역센터점 / 02 3449 5965 · 02 3467 8377

2월 영화인들의 눈을 사로잡을 두 개의 영화제가 펼쳐진다.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Academy Awards)와 베니스·칸과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를린국제영화제(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가 바로 그것이다.

오는 2월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돌비 극장에서 열리는 아카데미상은 올해로 87회를 맞는다. '아카데미상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7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지난 12일 진행됐는데 '보이후드'의 작품상을 비롯, 3관왕을 달성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도 주요 부문을 수상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보이후드'는 아카데미상에서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또 한 번의 돌풍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골든글로브에서 마이클 키튼의 남우주연상과 각본상 등 2관왕의 영예를 안은 '버드맨'과 뮤지컬 코미디 부문 작품상을 받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이번 아카데미상에서 각각 9개 부문에 이름을 올려 최다 후보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이미테이션 게임'이 8개 부문으로 뒤를 이었고, '아메리칸 스나이퍼'가 6개 부문으로 '보이후드'와 동률을 이뤘다. '버드맨'은 작품상과 감독상 외에 남녀주연상과 남녀조연상 등 연기 부문에 후보로 올랐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작품상과 감독상을 비롯해 촬영, 의상, 편집, 분장 등 제작 전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다. 작품상 후보로는 '버드맨'과 '그랜드부다페스트 호텔' '보이후드' '위월레스' '사랑에 대한 모든 것' '이미테이션 게임' '아메리칸 스나이퍼' '셀마' 등 총 8개 작품이 선정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아카데미상에서 골든글로브에서 3관왕을 차지한 '보이후드'와 2관왕 '버드맨'의 접전을 예상하고 있다. '보이후드'는 골든글로브 외에도 현재까지 영화 전문 사이트인 IMDb에 기록된 수상만 총 88개에 달한다. '버드맨' 역시 베니스국제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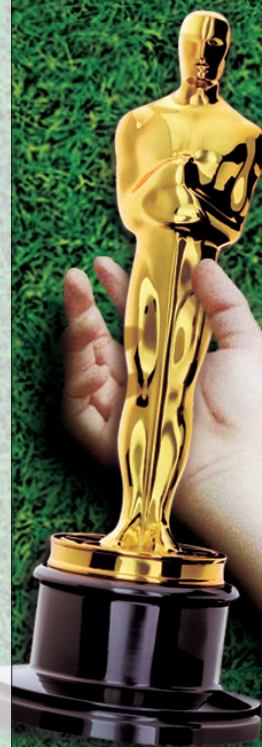
제 개막작, 뉴욕영화제 폐막작 선정을 시작으로 워싱턴, 보스턴, 뉴욕, 로스앤젤레스의 각종 비평가협회상, 고담 영화제 수상 등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여기에 '버드맨'의 골든글로브 작품상을 저지한 웨스 앤더슨 감독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과 '셀마' '폭스캐처' '사랑에 대한 모든 것' 또한 막강한 경쟁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상은 인종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남녀주연상, 남녀조연상, 감독상, 각본상 등 주요 부문 후보에 흑인 배우와 감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흑인 여성감독 에바 두버네이가 만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셀마'가 작품상, 주제가상 부문만 후보로 올랐을 뿐이다. 여기에 감독상, 각본상 등에 여성 후보가 없는 점도 성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여배우 줄리 델피는 "아카데미상은 부패했다. 아카데미 회원 90%는 백인 남성 노인이며 뇌물에 의해 상이 결정된다"고 비판했다.

봉준호 감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인 베를린영화제는 오는 2월 5일부터 10일간 열린다. 베니스·칸 등 3대 영화제 중 가장 먼저 열리는 베를린 영화제는 개막작으로 선정된 스페인 출신 여성 감독 이자벨 코아렛트의 '노바디 원츠 더 나이트'를 비롯해 총 19편이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한국영화는 2년 연속 경쟁부문 진출에 실패했다. 1000만 영화 '국제시장'이 파노라마 부문에 초청됐을 뿐이다. 올해 베를린영화제 경쟁부문에는 영국 탐미주의 영화의 거장 피터 그리너웨이 감독의 '에이젠슈타인 인 과나후아토'파트리시오 구스만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더 펄 버터'베르너 헤어조크 감독의 '퀸 오브 더 테크'테렌스 맬릭 감독의 '나이트 오브 캡스등이 눈길을 끈다.

최두선 기자 sun@

소년... '오스카' 잡을까



골든글로브 3관왕 '보이후드' 내달 22일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 9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버드맨' '부다페스트 호텔'과 경쟁 5일부터 열리는 베를린영화제엔 '국제시장' 파노라마 부문 초청



KBS '스파이' 고성희

KBS '힐러' 박민영

MBC '빛나거나... 오연서

“20대 안방마님 남시오~”

안방극장을 주름잡는 20대 히로인이 눈에 띈다. 바로 고성희(25), 박민영(29), 오연서(28)가 대표적이다. 세 사람은 최근 방송 중인 KBS 2TV 드라마 '스파이' '힐러', MBC 드라마 '빛나거나 미치거나'에서 주연으로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데뷔작인 영화 '본노의 윤리학'에서 수위 높은 노출 연기를 감행한 고성희는 MBC 드라마 '미스코리아'를 통해 이연희의 극중 라이벌로 등장, 매력과 연기력을 동시에 견주며 주목받았다. 청순한 외모를 지닌 고성희는 MBC '야경꾼 일지'를 거쳐 성장 가능성을 엿보이더니, 곧바로 KBS 2TV 금요드라마 '스파이'를 통해 김재중, 유오성 등과 호흡을 맞추며 단단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다.

또한 여성스러운 외모와 당찬 매력을 겸비한 박민영 역시 KBS 2TV 월화드라마 '힐러'를 통해 호응을 얻고 있다. KBS 2TV '성균관 스캔들', SBS '시티헌터'를 통해 주연급 연기자로 눈도장을 찍었다. 제작진에 따르면, 박민영은 본인 스스로의 만족보다 완벽에 가까운 성취를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최근 박민영은 MBC '개과천선'에 이어 '힐러'에서 카리스마를 과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화제작 MBC '왔다! 장보리'의 타이틀롤을 연기해 특유의 상큼한 매력과 사투리 연기로 호평을 얻은 오연서는 최근 '빛나거나 미치거나'를 통해 사극 연기에 도전했다. 제작사 메이퀸픽처스 관계자는 “오연서는 촬영장에서도 대본을 놓지 않고 설 틈 없이 연기 연습에 임하는 열성을 보이고 있다. 결보기에 사극이나 로맨틱 코미디에 가까운 이번 작품에서 특유의 매력을 더욱 배가시킬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방송 중인 드라마에서 20대 여배우가 속속 포진해 개성과 연기력을 뽐내며 시청자의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외에도 MBC '기황후' '트라이앵글' '오만과 편견'의 백진희(25), SBS 드라마 '상속자들' '피노키오'의 박신혜(25) 역시 최근 막 내린 작품에서 시청자의 전폭적 화답을 얻으며 독보적 입지를 구축했다.

전문가들은 “30~40대가 주연을 독식하는 안방극장에서 연기력을 갖춘 신선한 20대 여성 연기자들이 주연을 맡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주연으로 나서는 20대 여성 연기자들이 속속 배출되면서 드라마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서장훈 '예능 덩크슛'

감초 캐릭터로 방송가 종횡무진

'농구 히어로' 서장훈이 예능 샛별로 떠올랐다. 207cm의 장신, 투박한 외모의 서장훈이 예능감을 뽐내며 감초 캐릭터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는 통산 688경기, 1만3231점으로 2013년 30년의 농구 인생을 마감했다. 여전히 깨지지 않는 득점, 리바운드 기록으로 단연 프로농구 통산 1위를 거머쥔 서장훈은 최근 농구 코트가 아닌 방송가를 종횡무진하고 있다.

지난해 MBC 야외 리얼리티 '사남일녀'를 통해 예능의 문을 두드린 서장훈은 이하늬, 김구라 등과 유쾌한 호흡을 선보이며 새로운 예능스타로서 발돋움했다. 팬들의 열광적 반응을 이끌었던 1990년대 '농구대잔치'의 주역인 그로서는 이미 대중과 낯익은 상황이다. 여기에 진술함으로 무장한 그가 가식 없이 거리낌 없는 면모를 드러내자 매력에 더욱 매가된 것이다. 특히 주어진 환경에서 여타 출연진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출하는 시너지가 그의 특징점이다. MBC '일밤-



아빠! 어디가?'에서 유민수 아들 윤후에 순수함으로 다가간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MBC '무한도전-유혹의 거인'에서 정준하, 유재석 등과 친분을 바탕으로 볼레카메라를 유도했다. 더불어 서장훈은 예능에서 장르를 가리지 않고,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세바퀴', '속사정 썰렁' 등에 연이어 게스트로 출연해 토크 형식의 스튜디오몰에서 제몫을 해내는가 하면, MBC 동물 교감 리얼버라이어티 '일밤-애니멀즈'에 고정 출연해 외국의 세심함으로 신선함을 불어넣었다. 서장훈은 '애니멀즈' 제작발표회에서 최근 자신의 예능 활약에 대해 언급했다. 서장훈은 앞서 스스로를 방송인이 아니라고 한 점에 대해 “많은 프로 예능인들에게 죄송해 그렇게 말했다. 아마 추어 방송인 정도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해서 앞으로는 아마추어 방송인으로 나를 정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BBC x ONT x 헬스메디tv

www.hyundaimedia.com

2015학년도 대입 정시 예체능 실기고사

땀·눈물·열정... 꺾일 수 없는 꿈

그래요 난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인순이 '거위의 꿈'



지난 15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2015학년도 정시 의상디자인학과에 지원한 수험생들이 기초디자인 실기고사를 치르고 있다.

2015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기고사.

수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필기시험은 끝났지만 실기고사가 남아 있어 편히 발을 뻗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해 왔던 연습을 모두 쏟아내기엔 시험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무용가, 화가, 디자이너, 조각가, 음악가, 운동선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무수히 많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내가 흘린 땀만큼 그것에 가까워지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 합격'이 모든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계단 중 하나입니다. 더 높고 넓은 곳을 향해 가는 저를 지켜봐 주세요.

사진:글=노진환 기자 myfixer@



12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대입 미술학원에서 한 수험생이 정시 예체능 실기고사를 준비하고 있다.



13일 진행된 상명대학교 무용학과 2015학년도 정시 예체능 실기고사에서 한 수험생이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오상민의 현장X파일

남자 프로골퍼 '투어보다 레슨'

대회 적고 인기 없어 수년째 스폰서난
1억 이상 상금도 여자선수 절반 그쳐
시드 획득해도 경비 때문에 출전 포기



남자 프로골퍼들의 생존 노력이 처절하다. 한국 프로골퍼(KPGA) 코리안 투어 시드 획득자라도 투잡으로 투어 경비를 마련하는 프로골퍼가 적지 않다. 대회 수와 스폰서 부족이 원인이다.

지난 시즌 KPGA투어는 총 14개 대회(총상금 91억원)가 열렸다. 그러나 14개 대회에 전부 출전 가능한 선수는 극히 일부였다. 매경오픈, SK텔레콤오픈 등은 원아시아투어와 공동으로 주관한 대회로 코리안투어 상위 랭커만이 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전 대회 수 제한은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연간 획득 상금은 여자 선수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적었다.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는 총 45명의 선수가 1억원 이상의 상금을 획득한 반면 KPGA 코리안투어는 23명만이 1억원을 넘겼다. 여자 선수들의 절반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스폰서 부족이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은 남자 대회엔 수년째 스폰서 난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남자 선수는 정규투어 시드를 획득해도 투잡을 통해 투어 경비를 마련해야 하는 착잡한 현실이다.

KPGA투어 소속 선수 중 투잡으로 함박웃음을 터트린 선수는 김민수(25·별박)다. 그는 2013~2014 GTOUR(여름과 겨울에 열리는 스크린골프투어) 4승을 쓸어 담으며 3관왕(다승·상금·대상 포인트)에 올랐다. 김민수는 GTOUR을 통해 통산 1억원의 상금을 챙겼다.

김민수가 처음 GT투어에 뛰어든 것은 2013년 1월로 1년 2개월 사이에 1억원 이상의 상금을 벌어들

였다. 2012년과 2013년 KPGA투어에서 각각 1318만원과 2671만원을 벌었고, 지난해는 14개 대회에 출전해 4693만원(상금위순 54위)을 획득한 것과 비교해도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다.

프로골퍼에게 레슨만큼 좋은 투잡은 없다. 요즘은 하부투어(2·3부 투어)는 물론 정규투어 시드를 지닌 일부 프로골퍼들도 레슨을 통해 투어 경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레슨에 의한 수입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폰서 기업은 투어프로의 레슨 병행을 허락하지 않는다. 훈련에 집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지 관리에도 허점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잡으로 투어 경비를 마련할 수 있는 선수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투어 프로는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만큼 레슨 자체가 조심스럽다. 따라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레슨보다 주니어 선수(지망생) 레슨이 대부분이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암암리에 레슨을 진행하는 선수들도 있다.

투어를 포기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몸값 비싼 투어프로 채용을 꺼리는 골프연습장이 많기 때문이다. 고수익에 걸맞은 이미지로 선량받는 직업인 프로골퍼의 어두운 이면이다. 오상민 기자 golf5@



55년의 기다림

이번엔 우승이다!

지난 26일 호주 시드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호주 아시안컵 4강전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경기에서 이정협이 전반 첫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이정협은 조별리그 호주전 1골을 포함해 이번 아시안컵에서 두 골을 기록하고 있다. 시드니/뉴시스

내일 호주와 아시안컵 '최후의 결전'

신구 조화... 8강부터 베스트 멤버

기성용, 이청용·구자철 공백 메워

호주 5경기 12골 득점루트 다양

슈틸리케 "해오던대로 하는게 답"

이제 한 고비만 남았다. 55년 만의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이 개최국 호주와 격돌한다.

한국은 31일(한국시간) 호주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 스타디움에서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호주와의 결승전을 치른다. 한국이 27년 만에 결승전에 올라 55년 만의 우승컵을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호주전은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 한국은 대회 5경기에서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으며 16개 참가국 중 유일하게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조별리그에서는 매경기 수비수들이 크게 바뀌며 엇박자를

내기도 했지만 8강부터는 베스트 멤버가 자리잡고 있다. 신구 선수들의 조화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차두리, 박태환 등 베테랑들의 뒷받침 덕분에 손흥민, 김진수, 남태희 등 젊은 선수들이 편하게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 주장 기성용은 이청용과 구자철이 조별리그에서 부상으로 전장에서 이탈한 공백을 메웠다. 체력적인 면도 우위다. 27일 4강전을 치른 호주보다 하루를 더 쉬었다.

호주는 5경기 12골을 터뜨리며 참가국 중 최다골을 기록했다. 골 결정력을 갖춘 선수들도 많다. 이번 대회에서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10명이다. 공격의 중심은 팀 케이힐로 공중볼 다툼에 강한 선수다. 이번 대회에서도 엄청난 제공권을 바탕으로 호주 공격을 이끌고 있다. 메튜 레키, 로비 크루스, 마시모 루옹고 등은 공격 옵션을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한준희 KBS 해설위원은 "호주는 골키퍼부터 최전방 공격수까지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좋다. 득점 루트도 다양하다. 필드골,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우겨넣는 능력 모두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문성 SBS 스포츠 해설위원은 "호주는 2013년 안개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이후 톱볼 위주의 호주 축구를 짧은 패스 위주의 점유율 축구로 바꿨다. 2014년 과도기를 거쳐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다. 빠른 공수

전환이 가능해 상대팀으로 하여금 숨이 막히게 하는 축구를 구사한다"고 말했다.

물론 호주팀은 약점도 있다. 박문성 위원은 "중앙 수비수들이 라인을 높게 유지하다 보니 뒷선이 상당히 넓다. 측면으로 벌려서 호주를 공격하면 좋을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준희 위원은 "중앙 수비수의 발이 느린 편이다. 조직적이고 빠른 전방 압박으로 올라오면서 뒤에 수비라인을 바짝 당겨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뒷공간이 넓은 편이다. 호주의 압박을 뚫는 게 관건이다"라며 "탈압박의 중심은 기성용이다. 기성용 주변 선수가 효과적으로 움직인다면 기성용의 패스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했다.

울리 슈틸리케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은 "호주는 오래 호흡을 맞춘 선수들로 팀이 구성돼 각자 포지션에 맞춰 제 역할을 잘하는 팀이다"라며 "우리가 해오던 대로 나가는 게 해답"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조별리그 3차전에서 호주와 맞붙어 1-0으로 이겼다. 호주는 팀 케이힐, 마일 에디나, 로비 크루스 등 핵심 선수들을 벤치에 앉혀두고 경기를 치렀다. 포스테코글루 호주 감독은 "한국을 상대로 이번에는 조별리그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성근 기자 sgchoi@



2015 호주 아시안컵 결승전을 앞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이정협, 기성용 등 선수들이 28일(현지시간) 오후 호주 시드니 코가라 오벌에서 가벼운 러닝을 하며 몸을 풀고 있다.



슈틸리케 감독이 28일(현지시간) 오후 호주 시드니 코가라 오벌에서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시드니/뉴시스

시타하고 보상받고, 겨울골프 칠맛 나네

골프용품사 신제품 프로모션 진행

골프용품사의 신제품 발표가 한창이다. 각 골프용품사는 신제품 발표와 함께 시타·교환·보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던롭코리아는 한국전용 클럽 제시오 FG 드라이버의 무상 스캔 교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구매한 제품 스캔이 맞지 않을 경우 교환 신청자에 한해 일주일 이내 새 제품을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핑골프 용품을 수입하는 삼양인터내셔널은 그림 교체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본사(서울 종로구 재동) 및 하남AS센터(경기 하남시 풍덕동)를 방문해 그림을 교환하면 정상가보다 50% 저렴한 비용으로

그림을 교환할 수 있다. 가격은 드라이버·페어웨이우드·아이언 8000원, 퍼터 1만~1만5000원이다.

한국미즈노는 JPY850 포지드 아이언 출시를 기념해 정품등록 이벤트를 실시한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는 이 행사는 2월 15일까지 해당 제품을 구매한 후 공식 홈페이지에 정품 등록과 사용 후기를 남기면 매주 월요일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미즈노 아이언 헤드커버, 5명에게는 헤드커버와 미즈노 골프화를 증정한다. 행사는 2월 15일까지다.

일본 브리지스톤 골프용품을 수입하는 석교상사는 직장인들을 위해 주말 GFD(골퍼즈드 파티) 이벤트를 진행한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4타임)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오상민 기자 golf5@

www.rynkorea.com

세계가 인정한

린

대한민국 위키 & 파워 스포츠

(주)RYN코리아는 인류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는 기업정신으로 기능성 워킹화에서부터 스포츠 패션까지 세계최고의 제품만을 고집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1등 기업입니다.

WORLD BEST NO.1

- 해외 20여개 국가로 수출
- 대통령 표창 수상
- 미국 오바마 대통령 표창 수상
- 대한체육회 / 대한올림픽위원회 공식 파트너사 선정
-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 공식후원사 선정
- 광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단 공식후원사 선정
- 미국 FDA 1등급 의료기 등록(국내 신발업계 최초)
- 유럽 CE 의료기기 인증(국내 기능성 신발 최초)
- 이탈리아 AC STUDIO와 디자인 협약




“증권사 NCR 완화 큰 성과 전문 금융투자인 키울 것”

〈영업용순자산비율〉

내달 3일 이임식 갖는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협회 새 먹거리 위해 K-OTC시장 활성화 시급
퇴임 이후에도 금투협 MBA 업그레이드 노력

“지난 3년간 증권사 NCR(영업용순 자산비율) 완화와 펀드슈퍼마켓 설립, K-OTC 출범 등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대부분 이행한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양성을 위해 그동안의 경험을 살리고 싶은 바람이 크네요.”

내달 3일 이임식을 갖는 박종수(사진)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여의도 금투협 본사 집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직접 만나 그동안의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2012년 2월 제2대 금투협회장으로 취임한 박 회장은 시장과 상부상조하며 △회원사들과의 소통 △자본시장 외형 확대를 위한 제도 및 규제개정 추진 △신입먹거리 구축 △금투협 임직원들의 전문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박 회장은 “업계의 오랜 바람이던 NCR 규제완화가 중소형사들에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아쉽지만, 기관투자자들이 NCR 기준을 거래증권사 선정 기준에서 제고하겠다고 한 점은 의미가 크다”며 “앞

으로도 남아 있는 굵직한 규제 관련 현안은 대외협상력이 출중한 신임 회장이 잘 협의해 풀어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금투협 자체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기존 프리보드(Free Board) 시장을 대신해 지난 8월 개장한 K-OTC시장 성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금투협 입장에서선 인력 활용 문제와 수익구조라는 두 가지 문제가 늘 고민거리”라며 “K-OTC시장이 활성화되면 협회 자체적 신수익원은 물론 회원사들의 회원비도 줄일 수 있는 효과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산증인인 그는 퇴임 이후에도 후배들의 전문적 교육 양성에 직간접적으로 나서 자본시장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뜻도 피력했다. 박 회장은 “현재 금투협 MBA과정은 금융공학, IB 등 5개 과정을 100시간 이수하면 수료증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외국처럼 좀 더 전문화하고 체계적이며 공신력 있는 교육



과정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크다”며 “금투협 MBA 과정이 금융전문가 양성기관으로 거듭나는데 그동안의 경험이나 인맥을 적극 활용해 돕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이후 헝가리 대우은행 행장, 대우선물 대표, 대우증권 대표, 우리투자증권 대표 등을 거친 금융투자업계 대표적 산증인으로 손꼽힌다. 신중한 판단력과 추진력이 강했던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업계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침체에 빠진 자본시장 부흥에 힘써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경아 기자 kakim@

이용철 유안타증권 글로벌비즈니스팀장

“후강통 ‘압도적 1위’ 목표”

국내 증권사 첫 전문포털 준비
상하이종합지수 올 4000 가능

범종화권 증권사를 표방하는 유안타증권이 중국 증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후강통(홍콩-중국 상하이 거래소 간 교차거래 허용) 시행으로 중국 자본시장 개방에 속도가 붙자 전문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현지 인력을 채용하는 등 투자 확대에 나섰다.

이용철 유안타증권 글로벌비즈니스팀장은 30일 “후강통 분야에서 압도적 업계 1위가 되는 게 목표”라며 “이 분야에서 잘자라는 의도로 글로벌비즈니스팀이 개설됐다”고 말했다.

◇전문포털·성향별 포트폴리오 제공 = 글로벌비즈니스팀은 중국 증시 투자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국내 증권사 최초로 후강통 전문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포털에는 유안타증권의 추천 종목, 투자 전략, 상장 종목 공시 분석, 뉴스 등 후강통에 특화된 콘텐츠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 팀장은 “향후 다른 해외 주식들도 점차적으로 소개할 것”이라며 “유안타증권에 오면 다른 데서는 듣지 못했던 정보를 듣는다는 인식을 갖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하이 지수 연내 4000 찍나… 정책 테마 관심= 유안타증권이 후강통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증시의 상승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는 투자 매력 때문이다. 상하이종합지수는 후강



통 시행 이후 35%가 상승하며 고점을 뚫었다는 우려했으나 연말까지 20%가량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팀장은 “저평가는 상당 부분 해소됐으나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체력에 비해서는 아직도 저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올 연말까지(상하이종합지수가) 4000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강통 선제적 준비 한창 = 유안타증권은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선강통(深港通)’ 준비에도 여념이 없다. 선강통은 홍콩과 선전 증시의 교차거래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 팀장은 “5월보다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며 “투자자 입장에서선 선전증시에 투자할 기업이 다양화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하이투자證 ‘칼바람’

현대重 구조조정 여파
임직원 25% 감축키로

하이투자증권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섰다. 모기업 현대중공업의 2차 구조조정에 맞춰 계열사 역시 전방위적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대규모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지 1주일 만에 날아든 통보에 직원들은 적잖게 술렁이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와 하이투자증권 노조 등에 따르면 회사 경영진은 지난 28일 노동조합 측에 구조조정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이 전달한 구조조정 내용은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포함해 250명 규모다. 전체 임직원 960여명 가운데 약 25%에 해당한다. 영업점 20여곳도 통폐합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퇴직자에게 1년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모기업 현대중공업의 2차 구조조정이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통보에 하이투자증권 직원들은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회사가 흑자로 전환했고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 20일 180~200%에 이르는 대대적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지 1주일 만에 구조조정 통보가 이어져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박정현 하이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기업 27%. 지난해 회계처리기준 어졌다

금감원 재무제표 감리, 표본기업 37개사 중 10개사 위반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기업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표본으로 선정된 회사 중 27%에 달하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14년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표본으로 선정된 37개사 중 10개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받아 지적률 27%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지적률 18.9%보다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금감원은 표본 선정에 있어 무작위 방

식 외에도 횡령·배임혐의 발생, 잦은 최대주주 변경 등 분석위험요소 방법을 병행해 표본감리대상을 추출함에 따라 상장기업의 표본감리 지적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비율은 33.3%로, 코스닥 상장법인의 지적률 18.8%보다 높다. 다만 최근 5년 누적기준으로 살펴보면 코스닥 상장법인의 지적률(26.0%)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지적률(16.4%)보다 약 1.6배 높았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통보돼 감리에 착수하는 혐의, 위탁감리의 경우 혐의 감리는 32개사 중 29개사, 위탁감리는 20개사 중 18개사가 각각 지적받았다.

표본, 혐의, 위탁 감리를 모두 포함한 총 감리 회사 수는 총 89개사로 전년 105개사보다 16개사 감소했다. 이는 동양계열사 6개사, 세월호 사고 관련 계열사 13개사 등 다수의 피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과 효성 등 대형사에 감리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중과실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68.4%로 다수이나 매출액 과대 계상 등 고의적 위반 사례도 계속 적발돼 31.6%를 차지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이스트스프링, 대한민국 최우수 주식 운용사에

아시아 에셋매니지먼트 선정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금융투자 전문지 ‘아시아 에셋매니지먼트’(Asia Asset Management)가 주최하는 ‘2014 베스트 오브 베스트 어워즈’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주식 운용사(Best Korean Equity Manager)’로 선정됐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의 대표 펀드인 이스트스프링 코리아 리더스 펀드와 이스트스프링 업종일등 펀드는 작년 각각 7.49%, 7.34%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 기간 국내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5.34%

에 비해 크게 앞선 성과다.이 같은 우수한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 두 펀드는 각각 2000억, 135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한편 아시아 에셋매니지먼트는 1995년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초 경제, 금융전문 월간지로 금융투자에 관한 심층적 정보 제공 및 간담회, 콘퍼런스 등을 개최하며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아시아 에셋매니지먼트가 매년 주관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어워즈’는 한국을 포함한 중국, 홍콩, 인도,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운용 성과가 뛰어난 자산운용사를 선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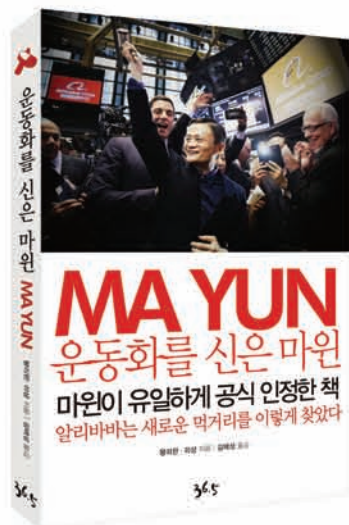
김경아 기자 kakim@

중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독점 출간!

알리바바는 새로운 먹거리를 이렇게 찾았다!
마윈이 공식 인정한 단 한 권의 책!

MA YUN

운동화를 신은 마윈



왕리판·리상 지음 | 김태성 옮김
36.5 | 값 17,000원

알리바바의 마윈은 왜 한국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을 육성했을까?

한국 네티즌들이 가장 동경하는 슈퍼리치는 알리바바그룹의 마윈 회장으로 나타났다. 마윈은 한국의 포털사이트와 SNS에서 ‘꿈’이라는 단어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인물로 조사되었다. 그는 어떻게 중국의 경영인으로서 한국인들에게 이렇듯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을까?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알리바바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의 대기업과 달리 이른바 ‘갑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에 이 책은 마윈이 어떻게 중국 IT 산업의 토대를 닦고, 창업자와 중소기업을 육성했는지 보여 준다. 마윈에 대해 알기 위해 이보다 더 좋은 책은 없을 것이다.

문의: 02-335-0445

입사 후 1년이 10년 뒤를 좌우한다

26년간 삼성의 인사·교육 분야에서 기획과 실무를
전담한 인사 전문가가 전하는 신입 사원 직장 생활 가이드

입사 1년 차

직장 사용설명서



조영환 지음 | 280 쪽
북오션 | 값 15,000원

“‘미생’을 ‘완생’으로 바꿔줄 신의 한수”

◎ 이 책은 신입 사원이 갖추어야 할 자세나 태도, 생활방식, 일에 임하는 자세나 조직 생활에 중요한 요소들을 사전에 알려줘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기업의 꽃인 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이 책에서 소개하는 직장 생활 요령을 터득하고 실천하면 상사에게 인정받고 조직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재로 자리매김할은 물론 직장이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를 건디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룰 터전으로 바뀔 것이다.

문의: 02-322-6709

“중동서도 터졌다” 해외 영토 넓히는 솔리드



대형건물에 설치해 무선통신 원활하게 돕는 DAS 장비
작년 상반기 멕시코·브라질...하반기 러시아·사우디 공급
올 글로벌 매출 전체 절반 예상...2019년 80억달러 전망

무선 통신망 장비업체 솔리드가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남미에 이어 유럽과 중동 지역까지 통신 장비 공급에 성공했다. 기존 미국 사업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전망이 밝다는 분석이다.

30일 솔리드 관계자는 “지난해 새로운 해외 거래선을 많이 확보했다”며 “상반기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하반기에는 러시아,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DAS 장비를 공급하며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최근 무선 통신망 장비 투자가 늘고 있는 요충지”라고 설명했다.

DAS는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형 건물이나 지하철 등에 설치돼 무선통신과 데이터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해주는 장비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확대에 따른 무선데이터 사용이 늘어나며 DAS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요 시장인 미국의 경우 9·11사태 이후 대형 건물 등 음영지역에서의 통신환경 조성이 법제화되고 LTE 상용화가 이뤄지면 서 수요가 크게 늘었다.

솔리드는 지난 2012년 뉴욕 지하철 시스템 전역에 DAS 장비를 공급하는 등 성과를 거뒀고, 현재 100곳 이상에 장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히 DAS는 다른 제품에 비해 수익성이 좋은 까닭에 해외 매출이 늘어나면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솔리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 페르런스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외 매출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회사 관계자는 “6(국내)대 4(해외)였던 매출 비중이 올해 5대 5까지 갈 전망이다”이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어 어떤 나라에서 한번 페르런스를 쌓기 시작하면 매출이 늘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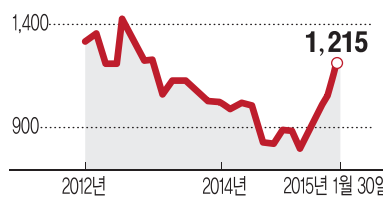
지난해 글로벌 DAS 시장은 약 44억 달러로 예상되며, 2019년에는 약 8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 회사의 기존 북미 시장 매출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대증권은 솔리드에 대해 DAS 장비 사업의 호조로 인해 지난해 북미지역 수출액은 매출비중의 28%인 약 6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5년에는 북미지역 수출액이 매출비중의 40%인 약 1000억원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했다.

송영록 기자 syr@



글로벌에스엠 주가 추이
단위: 원



스페인 車 부품사 품은 글로벌에스엠

유럽생산 차량 90% 공급 'IG'

글로벌에스엠이 인수를 추진중인 스페인 소재 자동차 부품사가 벤츠 등 유럽 생산 차량 90%이상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글로벌에스엠 관계자는 “이번에 인수를 하려는 스페인 IG는 브레이크 모듈, 좌석 시스템, 서스펜션, 스티어링, 안전벨트 등 자동차에 사용되는 패스너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현재 스페인 알파란 그룹(Alfalan)이 IG의 자본 100%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IG사는 현재 유럽 완성차에 납품하는 대부분의 부품 제조사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며 “전체 유럽 생산 차량 90% 이상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스엠은 지난 28일 유럽 스페인 소재 자동차용 패스너 전문업체 ‘인더스트리알스 골’ (Industrias Gol) 자본 100%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글로벌에스엠은 IG 인수로 생산제품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설계진 기사 skj78@

모바일포렌식 업체 품은 다윈텍

국내 시장 1위 ‘지엠디시스템’

다윈텍이 국내 모바일포렌식 1위업체인 지엠디시스템을 인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포렌식이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추출하고 복원해 국가기관의 범죄수사 및 민간 법적분쟁의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세계시장 규모가 1조5000억원 대인 디지털포렌식 분야에 비해 모바일포렌식 시장 규모는 아직 작지만, 매년 큰 폭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유망한 분야이다. 지엠디시스템은 국내 1위 업체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이 분야의 강자다.

김연수 다윈텍 이사는 “다윈텍 뿐만 아니라 문서보안은 한컴, 임베디드는 MDS 테크놀로지, 암호화 관련해 소프트웨어 등 관계사들과 시너지가 매우 크다”며 “향후 지엠디시스템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모바일포렌식 분야의 1등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진 기사 skj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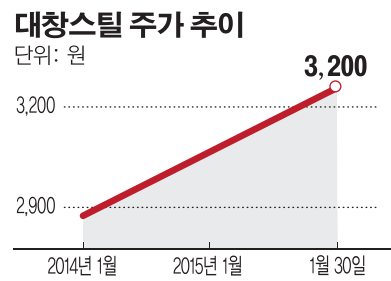
400억 땅부자 대창스틸, 원전 바닥재 독점 공급

DMZ 인근 파주공장 보유
아부다비 등 한국형원전에

400억대 토지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새내기주 대창스틸이 한국형 원전에 이종 바닥재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대창스틸 관계자는 “원자력발전 이종바닥재를 아부다비원전 1, 2호기, 요르단 원전 등 해외 한국형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해 신원전 1, 2호기등에 공급했거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DMZ세계평화 공원 기대감에 코아스, 일신석재, 이화공영 등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자 일부 투자자들이 새로운 관련주 찾기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대창스틸도 이 지역에 400억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다. 행정구역상 파주이면서 문산에 위치한 파주공장을 보



유하고 있다는 것.

루머를 확인한 결과 대창스틸은 파주공장을 비롯해 인천 본사, 아산공장 등의 대규모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상 376억9600만원대의 토지와 182억대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창스틸은 지난해 12월 5일 상장한 새내기주다. 주요 원재료의 95%를 포스코에서 공급받아 기아차를 비롯해 한국GM과 쌍용차 등에 공급하고 있다.

철강이라는 전통산업이아보니 투자자

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자 일부투자자들이 DMZ관련 테마주로 주가 띄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창스틸은 이종바닥재 국내 1위 업체다. 2013년 143억 매출에서 지난해 47.6% 성장했다.

이종바닥재는 오피스텔 등 건설과도 밀접하지만 전산데이터센터 등 IT분야에도 공급되는 품목이다. 특히 대창스틸의 이종바닥재는 원자력발전소용 독점 스펙 보유로 국내 원전 뿐아니라 해외 한국형원자력발전소 수주현장에 적용되어 수출 진행 중이다.

대창스틸은 삼수 끝에 상장에 성공해 지난달 상장했으며 기관 수요예측에서 219.9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일반공모에서도 흥행을 이어가 최종 경쟁률 568대 1을 기록하며 공모가 2500원 보다 44% 높은 가격에 화려하게 상장했지만 이날 현재 3200원대에 거래 중이다.

설계진 기사 skj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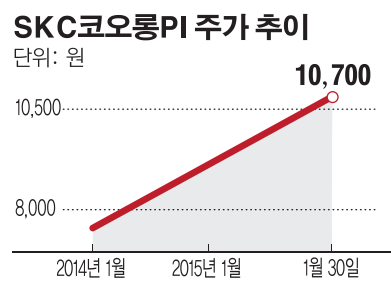
SKC코오롱PI 우덕성 대표, 자사주 4682주 취득

“지속성장 위한 책임경영 강화”
방열시트용 필름 고마진을 기대

PI 필름 전문 제조사 SKC코오롱PI가 자기주식 취득에 나선다.

SKC코오롱PI의 우덕성 대표는 지난 29일 자기주식 4682주를 장내 취득 했다. 총매입 금액은 4537만원, 주당 매입가격은 9690원이다.

SKC코오롱PI 관계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가치에 비해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



돼 있다는 판단 아래 자기주식 매입에 나섰다”며 “이번 자기주식 취득은 높은 수익성과 지속 성장에 대한 우덕성 대표이사의 자신감과 책임경영 강화 차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성장동력인 방열시트용 필름 시장의 상승세 및 급격한 해외매출 증가로 향후 지속적인 고마진을 기대된다”며 “향후 적절한 가치평가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하고, 신시장 확대와 견조한 손익 달성으로 주주까지 극대화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SKC코오롱PI는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내 유일 PI필름 전문 제조사로 방열시트용 사업의 고속 성장 및 중국 중심의 해외 매출 증가로 매년 평균 2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고 있다.

김유진 기사 eugene@

조아제약, 중동 모래바람 뚫는다

‘아랍 헬스 두바이’ 참가
자양강장·비만치료제 공개

조아제약이 본격적으로 중동 시장에 진출을 타진하고 나섰다.

조아제약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전시장(Dubai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에서 열린 ‘2015 Arab Health Dubai’ 박람회에 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Arab Health Dubai’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 제약 및 의료기기 관련 박람회로 올해 참가업체는 전세계 3500여개 업체에 달했다. 현장 방문객은 주최측 추산 8만명 이

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아제약은 2012년 ‘제17회 두바이 국제 제약 및 기술컨퍼런스&전시회(DUPHAT DUBAI 2012)’와 2014년 ‘2015 Arab Health Dubai’에 참가한데 이어 세번째로 이번 박람회에 전시부스를 마련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조아제약은 다양한 일반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였으며 UAE, 중동, 아프리카 등 인근 국가에서 방문한 업체 바이어들과도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살포시정(다이아르트에 도음), 뉴웁시럽, 헤모폴리엑(철분제), 마비스포르테엑(마그네슘, 비타민B6 함유) 등 일반의약품과 트리오 포플라, 레드진생, 진생코리아 등 중동시장의 특성

에 맞는 자양강장, 비만치료제 등을 선보였다.

UAE의 경우 인구 증가, 서구식 식습관 변화에 따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증가로 관련 의약품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R&D, 제조,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조아제약의 특징점을 어필했다”며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 바이어들은 자양강장과 성기는 항상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비롯해 비만치료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중동 및 북아프리카 제약시장은 2013년 기준 310억 달러 규모로 매년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중동지역 내 의약품 소비 증가, 높은 수입의존도,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전세계 제약업체에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선영 기사 moon@

자회사 자본잠식 지갑 연 태영건설

인제스피디움에 3년간 180억원 지원

공시 돋보기

태영건설이 운영권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열사 인제스피디움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18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것.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인제스피디움매니지먼트(이하 인제스피디움)는 모기업인 태영건설로부터 22억원을 장기차입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자율은 6.9%이며 3년간 거치 후 일시상환하게 된다.

인제스피디움은 지난 2년동안에도 태영건설로부터 수 차례 자금을 차입했다. 2013년 8월 42억원, 2014년 4월 8일과 6월 25일 각각 15억원과 10억원씩을 빌린 것. 또한 7월 31일에도 49억원의 자금차입이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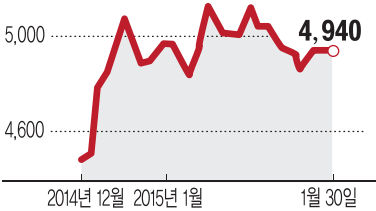
이들 자금의 자금차입 조건은 올해 이뤄진 차입과 마찬가지로 6.9%의 이자율에 상환방법은 3년 거치 후 일시상환이다.

특히 2014년 개별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당해 사업연도 기준 차입총계의 경우 116억원으로 공

시되고 있어 이를 합할 경우 최근 3년간 태영건설이 인제스피디움에 빌려준 금액은 무려 180억원에 이르게 된다.

태영건설이 이처럼 대규모 자금을

태영건설 주가 추이



계열회사에 빌려준 것은 인제스피디움의 운영권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인제스피디움은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28억2600만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인제스피디움 측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제스피디움(이하 인제스피디움)과의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자금 차입을 역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러 “모기업의 지원 없이는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태영건설의 상황도 그리 낙관적은 않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86억 원에 달하고 있다. 누적 순이익은 자산매각 등을 통한 차익실현을 통해 15억원을 확보한 것이 전부다.

한편, 인제스피디움은 태영건설, 포스코ICT, KRF 등이 사업비 1863억원을 투자해 인제군 일대 106만888㎡ 부지에 조성한 국제 규모의 서킷이다.

문선영 기사 moon@

70억 장전 코아크로스, 중국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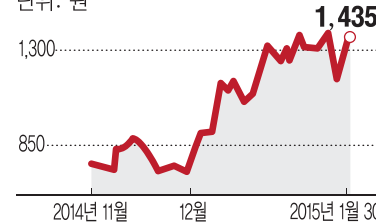
의료관광 통한 성형 비즈니스

코아크로스가 유상증자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고 중국 화장품 및 의료 비즈니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코아크로스는 7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주발행행액은 1045원이고 발행된 신주는 1년간 자발적 보호예수를 실시한다. 3자배정 대상자는 김윤희 씨 외 8인이다.

코아크로스는 조달된 양질의 자금으로 중국 화장품 및 의료 비즈니스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 내 유명 의료 그룹과 공동으로 화장품 및 의료 비즈니스 사업을 추진하며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 성형 관광객들을 모집해 의료 서비스 관련 수익을 창출시킬 예

코아크로스 주가 추이



정이다.

코아크로스 관계자는 “업황 회복으로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광통신 PLC 부품 사업과 별도로 자금 조달을 통해 중국 의료 관광객 유치로 통한 성형 비즈니스와 코스메틱 관련 판매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조만간 한국과 중국 내 의료 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성형 비즈니스 사업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사 syr@

[LG의 혁신이 모여 차원이 다른 모바일 라이프를 만들어갑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
Innovation for a better life

LG디스플레이
실감나고 생생한 몰입감을 극대화한
5.5 Full HD 커브드 플라스틱 OLED 디스플레이

LG이노텍
전문가 수준의 흔들림 없는 촬영이 가능한
13 메가픽셀 OIS 카메라 모듈

LG화학
진정한 커브드 디자인을 완성하는
고속 충전 커브드 배터리

LG전자
• 손에, 얼굴에, 눈에 가장 최적화된 디자인
• 일상에서의 가벼운 흠집을 복원하는 셀프 힐링

LG G Flex 2

